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8월  
석사학위 논문

슬로리딩 수업이 중학생의 독서  
태도와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양 지 원

# 슬로리딩 수업이 중학생의 독서 태도와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low Reading  
Class on Reading Attitudes and Expressive  
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2021년 8월 27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양 지 원

# 슬로리딩 수업이 중학생의 독서 태도와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도교수 이 재 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양 지 원

## 양지원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혜영 (인)

위원 조선대학교 부교수 조희정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재기 (인)

2021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차

|                              |           |
|------------------------------|-----------|
| <b>I. 서론</b> .....           | <b>1</b>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
| 2. 선행 연구 검토 .....            | 3         |
| 3. 연구 문제 및 제한점 .....         | 12        |
| <br>                         |           |
| <b>II. 이론적 배경</b> .....      | <b>14</b> |
| 1. 슬로리딩의 개념과 원리 .....        | 14        |
| 2. 독서 태도 .....               | 18        |
| 3. 읽기와 쓰기를 연계한 표현력 .....     | 21        |
| 4. 언어네트워크 분석 .....           | 23        |
| <br>                         |           |
| <b>III. 연구 방법 및 절차</b> ..... | <b>25</b> |
| 1. 연구 대상 및 기간 .....          | 25        |
| 2. 연구 절차 .....               | 26        |
| 3. 검사 및 분석 도구 .....          | 28        |
| 가. 활동지 .....                 | 28        |
| 나. 설문지 .....                 | 33        |
| 다. 언어네트워크 분석 .....           | 37        |
| 라.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 .....       | 40        |

|                 |     |
|-----------------|-----|
| IV. 결과 분석 ..... | 45  |
| 1. 표현력 .....    | 45  |
| 가. 단어 .....     | 46  |
| 나. 글 내용 .....   | 59  |
| 다. 글 구조 .....   | 68  |
| 2. 독서 태도 .....  | 72  |
| 가. 독서 선호도 ..... | 72  |
| 나. 독서 동기 .....  | 77  |
| 다. 독서 효능감 ..... | 87  |
| 라. 독서 몰입 .....  | 92  |
| V. 결론 .....     | 96  |
| 참고문헌 .....      | 100 |
| ABSTRACT .....  | 102 |
| 부록 .....        | 106 |

## 표 목차

|  |    |
|--|----|
| [표 1] ‘노는’ 것처럼 ‘배우는’ 포인트 .....             | 5  |
| [표 2] 은수저 연구 노트 공부법 .....                  | 6  |
| [표 3] 국어의 중요성과 국어력을 높이는 방법 .....           | 7  |
| [표 4] 슬로리딩의 개념과 원리 .....                   | 16 |
| [표 5] 독서 동기, 독서 효능감, 독서 몰입의 개념 .....       | 19 |
| [표 6] 사전·사후 설문 문항 .....                    | 34 |
| [표 7] 추가 설문지 1 문항 .....                    | 35 |
| [표 8] 언어네트워크 단어 변환 작업 사례 .....             | 39 |
| [표 9]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 1 .....                | 41 |
| [표 10]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 2 .....               | 42 |
| [표 11] 사전·사후 글쓰기에서 나타난 상위 50 단어 목록 .....   | 48 |
| [표 12] 사전·사후 글쓰기 상위 30 단어 연결 중심성 비교 .....  | 53 |
| [표 13] 사전·사후 글쓰기 상위 30 단어 위세 중심성 비교 .....  | 55 |
| [표 14] 독서 선호도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 결과 .....        | 73 |
| [표 15] 독서 선호도에 대한 추가 설문 결과 .....           | 74 |
| [표 16] 독서 동기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 결과 .....         | 77 |
| [표 17] 월 평균 독서량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 결과 .....      | 79 |
| [표 18] 월 평균 독서량 변화 추이 .....                | 80 |
| [표 19] 독서 동기에 대한 추가 설문 결과 .....            | 81 |
| [표 20] 독서 효능감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결과 .....       | 88 |
| [표 21] 독서 효능감에 대한 추가 설문 결과 .....           | 89 |
| [표 22] 성공적인 독서 수행 기준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 결과 ..... | 91 |
| [표 23] 독서 몰입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 결과 .....         | 93 |
| [표 24] 독서 몰입에 대한 추가 설문 결과 .....            | 94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기사문 슬로리딩 종이 활동지 1 .....        | 29 |
| [그림 2] 기사문 슬로리딩 종이 활동지 2 .....        | 30 |
| [그림 3] 기사문 슬로리딩 온라인 활동지 1 .....       | 31 |
| [그림 4] 기사문 슬로리딩 온라인 활동지 2 .....       | 32 |
| [그림 5] 추가 설문지 2 .....                 | 36 |
| [그림 6] 사전 글쓰기 상위 30 단어 언어네트워크 .....   | 51 |
| [그림 7] 사후 글쓰기 상위 30 단어 언어네트워크 .....   | 52 |
| [그림 8] 학생 A 슬로리딩 사전·사후 글쓰기 활동지 .....  | 60 |
| [그림 9] 학생 B 슬로리딩 사전·사후 글쓰기 활동지 .....  | 62 |
| [그림 10] 학생 C 슬로리딩 사전·사후 글쓰기 활동지 ..... | 63 |
| [그림 11] 학생 D 슬로리딩 사전·사후 글쓰기 활동지 ..... | 65 |
| [그림 12] 학생 E 슬로리딩 사전·사후 글쓰기 활동지 ..... | 66 |
| [그림 13] 학생 F 슬로리딩 사전·사후 글쓰기 활동지 ..... | 69 |
| [그림 14] 학생 G 슬로리딩 사전·사후 글쓰기 활동지 ..... | 70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가 독서<sup>1)</sup>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과 학생 모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를 가장 주된 독서 목적으로 뽑았다고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정보 습득 외에도 우리는 독서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거나 즐거움을 느끼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어떤 형태의 정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독서 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로 정보의 습득을 이야기하고 이에 공감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정보 습득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던 독서 활동은 최근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휴대성을 겸비한 디지털 기기와 각종 영상 플랫폼의 발달로 사람들은 독서 외의 다른 활동을 통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 매체의 발달은 지식과 정보의 습득뿐 아니라 마음의 휴식, 즐거움 향유, 여가 시간 보내기 등의 면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해주었으며 이는 점차 사람들에게서 독서가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허나 이처럼 실질적인 독서 활동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독서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 성인의 65.5%, 학생의 76.7%는 책 읽기가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의 유용성 정도 항목에서도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부터 ‘문제 해결 능력 향상’까지 독서가 도움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보다

---

1) 본 연구에서는 독서와 읽기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비록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 독서의 유용성 정도와 관련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계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독서의 유용성 자체는 초등학생의 79.6%, 중학생의 76.7%, 고등학생의 74.1%가 독서가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는 점에서 학생들 역시 독서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사람들이 독서를 멀리하지만 독서의 유용성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독서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만일 영상 매체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독서의 가치가 지식과 정보의 습득에만 그쳤다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가치에 공감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식과 정보의 습득은 영상 매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미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책 읽는 교실이나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서 활동이 꾸준히 장려되고 있다는 것은 독서가 그만큼 교육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들은 독서가 영상 매체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분명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상 매체와 구별되는 독서의 특성,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독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 독서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도래한 독서의 위기를 막는 하나의 대안과도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상 매체와 구별되는 독서의 특성 중 하나로는 ‘머무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영상을 시청할 때보다 글을 읽을 때 머무름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영상 매체도 일시정지 기능을 통해 영상 재생을 잠시 멈출 수 있지만, TV나 영화관 등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영상을 멈추기가 어렵고 스마트폰, PC 등 개인 기기로 영상 시청할 때는 그 영상을 멈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손을 움직여 정지 버튼을 누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독서는 이와 다르다. 독서의 경우 독서를 할 때 읽는 이가 멈추고 싶으면 그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활자를 읽어나가는 과정을 잠시 멈출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즉각적으로 쉽게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은 독서가 영상 매체와 비교하여 지니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글을 읽을 때 머무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슬로리딩’ 독서법을 택하고 중학생들에게 이를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18년 책의 해를 기념하여 발표한 ‘독자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이 된 아이들에게서 책을 멀리하는 현상이 가장 먼저 두드러진다고 한다. 중등학교기는 생애 독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감소하는 1차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2018 책의 해 조직위원회, 2018). 따라서 이를 고려하였을 때 슬로리딩 독서법이 중학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독서를 멀리하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잘 읽는 독자’, ‘평생 독자’를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독서 교육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어떠한 글을 읽을 때 그 글에 머무르며 읽는다는 것은 그 글을 천천히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슬로리딩의 경우 직역하면 ‘천천히 읽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슬로리딩 독서법을 주요 소재로 삼아 그 효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한번 더 설정해보고자 한다.

## 가. 슬로리딩

슬로리딩 독서법이란 하시모토 다케시가 일본에 있는 나다중학교<sup>2)</sup>에서 교과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3년에 걸쳐 진행한 수업 방식이다. 특히 하시모토는 나카 간스케의 소설 『은수저』를 소재로 삼아 아이들과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1962년과 1968년에 각각 교토대와 도쿄대의 합격자 수 일본 내 1위를 기록하고 각종 책과 방송에 소개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하시모토 다케시, 2012).

특히 하시모토(2012)는 이러한 슬로리딩 독서법을 진행하며 ‘셋길로 빠지기’, ‘지식이 쌓여가는 즐거움’, ‘국어력 높이기’를 강조하였다. 이때 ‘셋길로 빠지기’란 글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읽다가 연을 날리는 장면이 나오면 밖으로 나가 연을 날려보고 과자를 먹는 장면이 나오면 과자도 직접 먹어보거나 글에 자신만의 제목을 붙여보는 것이다. 하시모토 다케시는 이러한 셋길로 빠지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배우는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고<sup>3)</sup> 스스로 생각하는 일의 중요성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sup>4)</sup>고 하였다. 아래 [표 1]은 이러한 하시모토 다케시가 노는

---

2) 나다중학교는 일본 효고 현에 위치한 사립학교로, 나다중학교와 나다고등학교가 ‘나다교’라는 이름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 나다교는 한 번 교과 담임을 맡으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6년간 계속 같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하시모토 다케시, 2012).

3) “이렇게 ‘셋길’로 빠지는 사이, 아이들이 배우는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고안해 낸 수업법입니다.”(하시모토 다케시, 2012:5).

4) “어디까지나 스스로 생각하는 일의 중요성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것이지, 결코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는 종류의 문제는 아니지요.”(하시모토 다케시, 2012:52).

것처럼 배우는 것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노는’ 것처럼 ‘배우는’ 포인트 (하시모토 다케시, 2012:39)

|    |  |
|----|--|
| 1  |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의문을 품어 보자.                         |
| 2  | 배움은 때때로 의미가 없어도 재미있으면 된다.                        |
| 3  | 좀 더 의식적으로 셋길로 빠져보자.                              |
| 4  | 안심하고 뭐든 말할 수 있고 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
| 5  | 시험 점수보다 평소 실력 쌓아 가는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                 |
| 6  | 결과를 내기까지 과정을 맛보고 유대감을 다진다.                       |
| 7  | 입시를 위한 테크닉과 배움은 별개다.                             |
| 8  | 시험은 운이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도전하자.                        |
| 9  |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암기식 공부도 어쩔 수 없지만, 벼락치기식의 지식은 금세 잊힌다. |
| 10 | 금방 도움이 되는 것은 금방 쓸모가 없어진다.                        |

하시모토 다케시가 셋길로 빠지는 것을 강조하고 하였다고 해서 배움에 필요한 지식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이유는 “지식이 쌓여가는 즐거움을 통해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되살릴 수 있기 때문(하시모토 다케시, 2012:50)”이라고 이야기하며 지식, 특히 국어 활동을 통한 지식의 습득을 상당히 강조하였다. 아래 [표 2]는 ‘은수저 연구노트 공부법’이라고 하여 하시모토 다케시가 슬로리딩 독서법을 적용할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책을 천천히 읽고 그 과정에서 꾸준히 배울 수 있는지 제시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은수저 연구 노트 공부법 (하시모토 다케시, 2012:51)

|           |  |
|-----------|--|
| 1. 통독     | 각 문장을 끝까지 읽고 나서 모르는 한자를 조사한다. 그리고 한자 읽는 법(발음법)을 찾아본다.  |
| 2. 주제     | 각각의 문장이 무엇에 대해 쓰여 있는지 생각해 보고, 스스로 각 장의 제목을 정해 본다.  |
| 3. 내용 정리  | 장별로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적혀 있는지 정리해본다.  |
| 4. 단어의 의미 | 연구 노트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의 의미와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암기하는 노력을 한다.                                 |
| 5. 주의할 문구 | 미리 뽑아 놓은 문장에 등장하는 단어의 쓰임 등을 설명해 본다.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도 있지만 어려운 단어도 있으므로 스스로 조사해 보거나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 본다. |
| 6. 단문 연습  | 앞의 ‘주의할 문구’에서 찾아 놓은 단어를 이용해 단문을 몇 개 만들고 그중 하나를 적어 둔다.  |
| 7. 감상     | 문장의 표현 방식이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옮겨 적는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는지 생각해 본다.                                 |
| 8. 참고     | 연구 노트에 이미 적혀 있는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잘 읽고 필요한 부분은 외워 둔다.   |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하시모토 다케시는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읽고 쓰는 등의 국어적인 학습을 상당히 강조하였다. 이는 모국어 사용 역량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는 하시모토 다케시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하며 ‘쓰기 활동’을 무척이나 강조하였는데 이를 두고 하시모토는 ‘쓰는 행위를 통해 읽기만 해서는 좀처럼 습득할 수 없는 판단력, 구성력, 집중력이 키워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sup>5)</sup>. 아래 [표 3]은 이처럼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국어력’을 강조한 하시모토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국어의 중요성과 국어력을 높이는 방법 (하시모토 다케시 2012:72)

|    |   |
|----|---|
| 1  | 국어 실력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다.                     |
| 2  | 국어 실력은 생활 전반에서 필수불가결하다.                 |
| 3  | 지식이 늘어가는 재미를 깨우치자.                      |
| 4  | 완전히 아는 단어도 다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           |
| 5  | 독서를 통해 스스로 체험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자.        |
| 6  | 해석하기보다 우선은 읽고 즐기자.                      |
| 7  | 이해하지 못해도 좋으니 일단 많은 책을 읽어본다.             |
| 8  | 국어 실력 향상의 열쇠는 쓰는 행위에 있다.                |
| 9  | 문장을 잘 쓰고 못 쓰는 것을 따지지 말고 가능한 많은 글을 써 본다. |
| 10 | 손으로 쓰는 행위에도 적극 도전해 보자.                  |

이처럼 ‘셋길로 빠지기’, ‘지식이 쌓여가는 즐거움’, ‘국어력 높이기’를 강조한 슬로리딩 독서법은 셋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면서도 지적인 측

---

5) “아이들이 어떤 문장을 적을 때는 보통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정리해 나가곤 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함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적으면 좋은가를 결정하는 능력 즉 ‘판단력’이 생기지요. 그와 동시에 문장의 논리를 세우고자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성력’도 키워집니다. 물론 그런 작업은 ‘집중력’이 없으면 좀처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문장을 쓰는 행위에 의해 판단력, 구성력, 그리고 집중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하시모토 다케시, 2012:66.)

면에 대한 성장을 함께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셋길로 빠지기에 대한 [표 1]에서 3번의 ‘좀 더 의식적으로 셋길로 빠져보자.’라는 것은 슬로리딩 독서법을 진행할 때 재미만 있고 글 내용과 무관한 활동을 모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미있는 활동이 글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표 2]와 [표 3]에 대한 내용도 읽고 쓰는 것을 중심으로 단어의 의미 탐색이나 문장 쓰기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 교과를 바탕으로 한 슬로리딩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실마리를 제시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국어 교과를 바탕으로 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는 국내 논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이경화(2020)는 기초 문식성 반영을 위한 국어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문식성<sup>6)</sup>은 교과 학습의 성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문명인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기초 문식성은 국어 학습 및 다른 교과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초 문식성 부진이 발생할 경우 학습 부진이 누적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생활 전반과 정서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였다.

서영진(2019) 역시 국어 교과 역량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국어 교과 역량은 국어 교과에서 배운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며 교과 교육의 방향이 되는 핵심 역량과 국어 교육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명순(2004) 역시 독서 작문 통합 지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언어 사용 활동 중 독서와 작문이 문자 언어를 다루는 능

---

6) 최근에는 문식성이 환경 문식성, 게임 문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며 그 의미가 상당히 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국어 교과의 기초 문식성에 해당하는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한다.

력으로서 다른 과목 학습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능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서 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국어가 학습의 중요한 토대이며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학습은 국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국어 능력은 학습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교육부, 2015)”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읽고 쓰는 활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습’이라는 것의 특성 상 국어 교과에서 읽고, 나아가 쓰는 부분에 대한 성장이 다른 분야의 학습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이는 곧 삶의 질 향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국내 슬로리딩 관련 연구

한편 우리나라에 이 슬로리딩 독서법이 들어온 것은 2014년 무렵이라고 볼 수 있다. EBS 다큐 프라임에서 용인시 성서초등학교 5학년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1학기 동안 한 권의 책을 천천히 다양한 방법으로 읽는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하였는데<sup>7)</sup> 그 이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슬로리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EBS에서 방영된 그 슬로리딩 수업은 2015년에 책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진행된 슬로리딩 연구들을 그 효과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EBS 다큐프라임에서 진행한 슬로리딩 수업은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유독 모국어 과목인 국어를 왜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다독’은 하지만 그 내용을 모르거나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박완서 작가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를

---

7) EBS1, <다큐프라임-슬로리딩 생각을 키우는 힘>, 2014.10.06.-2014.10.08. 방영

소재로 삼아 한 학기 동안 슬로리딩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아이들이 책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정영미, 2015).

한편 국내에서 ‘슬로리딩’을 소재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반정미(2017)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 활동은 초등학생의 자기 주도적 독서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슬로리딩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천천히 깊게 읽기’라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학생 4명을 대상으로 『아드님 진지 드세요』, 『꿀찌라도 괜찮아』, 『플랜더스의 개』를 제재 글로 선정하여 슬로리딩 수업을 설계 및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천천히 깊게 읽기’ 활동이 정의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의 향상, 독서 태도와 독서 능력뿐 아니라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슬로리딩 독서법을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한 사례로는 김동현(2018)을 들 수 있다. 김동현(2018)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창의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성,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소통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인재상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슬로리딩 활동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에 활용한 도서는 『검은 여우』라는 소설책이었으며, 슬로리딩을 통해 아이들이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도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책에 대한 관심과 독서하는 습관이 길러지게 되었음을 제시하였다.

강진숙(2017) 역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슬로리딩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하였는데,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몽실 언니』 두 책으로 1년 동안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한 뒤 그 변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강진숙(2017)

은 이 연구에서 학생들이 국어 수업이나 책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제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에게도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노력과 수업 준비도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제시하여 슬로리딩 수업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한편 국어 교과 수업 외에 최혜민(2019)은 겨울 방학과 봄방학 사이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잠시 등교하는 기간을 활용하여 다문화 교육과 슬로리딩 수업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슬로리딩 활동이 학생들의 초등학교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그리고 전은혜(2019)는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슬로리딩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하여 슬로리딩 수업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한 권의 책을 온전히 읽는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도 듣기와 읽기 영역의 신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어 외 영어 교과에서도 슬로리딩을 적용한 연구는 진행되었다. 노지영(2019)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슬로리딩 방식을 활용한 영어 동화 읽기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 향상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불안 감소라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도출해내었다. 그리고 이해영(2017)의 경우에는 역시 영어 동화책을 활용하여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자들의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영어에 대한 정의적인 영역과 인식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별로 슬로리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는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연구 내용들을 종합하였을 때 슬로리딩 수업은 느리더라도 한 권의 책을 다 읽는 경험과 그 안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로 정의적인 측면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표현력에 대한 부분은 교사의 관찰이나 학생 활동지를 토대로 분석한 점은 좋았으나 어떤 언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양적 데이터는 찾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연구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한 명의 교사가 해당 반의 여러 과목 수업을 담당하고 그로 인하여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할 시간 확보 및 교육과정 재구성보다 용이하다는 점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슬로리딩에 대한 연구는 최근 김민정(2020)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하였으나, 논문의 형태로는 아직 연구 결과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슬로리딩 수업에 사용된 소재들은 모두 동화책이나 소설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장르의 글로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지에 대한 궁금함이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지니고 있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설문지와 활동지, 언어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 질적과 양적으로 모두 접근하는 통합적인 분석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사문을 슬로리딩 소재로 택하여 문학이 아닌 글로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해도 학습자들에게 독서 태도와 표현력 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 문제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하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졌던 큰 의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되는 중학생들에게 슬로리딩 수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머무름’이 있는 슬로리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설계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셋째, 슬로리딩 수업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는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넷째, 슬로리딩 수업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이고 그러한 변화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전라북도 전주시에 한 중학교 1학년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결과를 전체 중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연구를 진행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교내 방역 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1인당 1권의 책을 제공하는 것이 여건 상 불가능하여 책이 아닌 기사문으로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 일정과 학년, 학사일정 등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어려웠다.

넷째, 코로나19로 인하여 중학교 수업도 40분으로 단축되어 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거나 학생들과 함께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II. 이론적 배경

### 1. 슬로리딩의 개념과 원리

하시모토 다케시(2012)는 그의 저서에서 ‘슬로 리딩’이라고 띄어쓰기를 넣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슬로 리딩(slow reading)’은 직역하면 ‘천천히 읽기’가 되는데 이는 자칫 단순하게 읽는 속도만 느린 독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여러 성취기준을 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독서법으로 ‘슬로리딩’이 합성어의 요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였다고 보고 ‘슬로리딩’을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쓰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슬로리딩’은 지금까지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한 연구자가 ‘천천히 읽는’ 방법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개념과 원리가 다소 다르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본 연구에서 진행할 슬로리딩에 대한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슬로리딩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 개념에 대한 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슬로리딩 수업을 설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반정이(2017)는 현 독서 교육의 문제점 및 새로운 독서 교육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천천히 깊게 읽기’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특히 그는 “‘천천히 읽기’란 충분한 독서 시간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하여 자기 점검 독서 전략을 활용해 읽는 ‘혼자 읽기’이고, ‘깊게 읽기’란 읽은 내용을 동료 및 교사와 함께 상호 작용하고 다양한 반응을 하는 ‘함께 읽기’를 의미한다.(반정이, 2017:5-6)”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천천히 깊게 읽기의 원리로는 독해 성향을 기르는 학습 환경 조성, 자율적 읽기 자료 선택 지원, 자기 점검 독서 전략 지원, 다양한 형태의 독서 반응 지원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한편 보다 직접적으로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한 강진숙(2017)과 김동현(2018)이 제시한 슬로리딩의 개념과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강진숙(2017)의 경우 슬로리딩이란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학생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생각하Go, 표현하Go, 함께하Go’의 세 가지 전략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을 아우르는 말(강진숙, 2017:4)”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때 ‘생각하Go’는 책 속 주인공이 되어 책 내용을 곱씹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의미하며, ‘표현하Go’는 모둠활동의 주인공이 되어 다양한 예술 표현 활동을 통해 표현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함께하Go’는 국어수업의 주인공이 되어 배움 나누기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은 강진숙(2017)이 제시한 슬로리딩 수업의 기본 원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동현(2018)의 경우 슬로리딩이란 책을 천천히 곱씹어가면서 이해하는 독서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슬로리딩의 원리는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국어, 과학, 체육, 미술 교과와 연계한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하며 제안하는 글쓰기, 그림자 모습 관찰하기, 신체 활동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생각을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용합과 다양한 활동이 슬로리딩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원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시모토 다케시의 경우 그가 처음부터 그의 수업을 ‘슬로리딩’이라고 명명하고 진행했던 것은 아니다. 교과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나카 간스케의 소설 《은수저》를 3년 동안 천천히 곱씹으며 진행하는 그의 수업 방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슬로리딩’으로 불리었다고 한다(하시모토 다케시, 2012). 그러나 그 수업 방식이 이후 등장한 여러 슬로리딩 수업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가 적용한 수업 방식의 의미는 곧 슬로리딩 수업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개념은 다소 모호한 편이지만 하시모토 다케시가 진행한 슬로리딩의 ‘원리’는 눈여겨볼 만하다. 앞서 I 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셋길로 빠지기’, ‘지식이 쌓여가는 즐거움’, ‘국어력 신장’을 중요하게 여기었

다. 그리고 이는 그가 생각한 슬로리딩 수업의 기본 원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중 ‘국어력 신장’의 경우 ‘읽고 쓰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 역시 슬로리딩 수업에 적용할 원리의 주요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하시모토 다케시가 진행한 슬로리딩 수업은 중학교 3년간 같은 학생을 담당할 수 있는 나다교의 특수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우리나라의 중학교 교실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를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 적용할 경우에는 각 단위 학교와 교실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슬로리딩’은 연구자마다 세부적인 표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결국 ‘천천히 읽기’를 개념 안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마다 읽기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읽고 무엇을 할 것인지, 슬로리딩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준으로 삼은 원리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슬로리딩의 개념과 원리

|                             | 슬로리딩의 개념                                      | 슬로리딩의 원리  |
|-----------------------------|---|---|
| 반정이 <sup>8)</sup><br>(2017) | 천천히(혼자) 깊게(함께) 읽기                             | 독해 성향을 기르는 학습 환경 조성, 자율적 읽기 자료 선택 지원, 자기 점검 독서 전략 지원, 다양한 형태의 독서 반응 지원                                |
| 장진숙<br>(2017)               |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전략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 |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생각하는 힘 기르기 (생각하Go), 모둠활동의 주인공이 되어 창의적 표현 기르기 (표현하Go), 국어 수업의 주인공이 되어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 (함께하Go) |

|                       |                                       |  |
|-----------------------|---------------------------------------|--|
| 김동현<br>(2018)         | 책을 천천히 곱씹어가면서<br>이해하는 독서의 방법          | 교과 간·교과 내 융합,<br>폭넓고 다양한 활동                  |
| 하시모토<br>다케시<br>(2012) | 한 권의 소설을 3년 동안 천천히<br>곱씹으면서 진행한 수업 방식 | 셋길로 빠지기, 지식이 쌓여가는 즐거움, 읽<br>기와 쓰기 중심의 국어력 향상 |

[표 4]에서 정리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슬로리딩은 주로 ‘책’을 제재 글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할  
 중심 성취기준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9국02-08]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는다.’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 성취기준의  
 해설을 보면 “‘한 편의 글’이란 앞뒤가 잘린 제재가 아니라 한 편의 완결된 글로서,  
 독자의 읽기 수준이나 독서 상황에 따라 짧은 글일 수도 있고 한 권의 책이 될 수  
 도 있다.(교육부, 2015)”라고 되어 있다. 또한 연구를 진행한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의 방역 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학생 1인당 1권의 책을 주고 수업  
 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이 아닌  
 글을 소재로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슬로리딩’에 대한 개념을  
 ‘한 편의 글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는 활동’으로 정의 내리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중학교 국어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한다는 점에서  
 슬로리딩의 충분한 읽기와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즐거운 성장’을 하기를 소망  
 한다. 따라서 이러한 슬로리딩 수업의 실현을 위해 첫째,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충분  
 한 시간 확보 둘째, 도전적인 제재 글 선정 셋째, 읽기와 쓰기 활동 중심 넷째, 교사

---

8) 반정이의 경우 직접적으로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나 슬로리딩을 포함한 ‘천천히 읽기’  
 의 특성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함께 다루도록 한다.

의 격려와 피드백을 본 연구가 추구하는 슬로리딩의 기본적인 원리로 삼고자 한다.

## 2. 독서 태도

한편 어떤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는 태도가 큰 영향을 끼친다. 독서 역시 하나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 태도는 독서 교육과 독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독서 태도 중에서도 독서 행위를 촉발하고 성공적인 독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며 이를 위해 독서에 집중하게 만드는 ‘독서 동기, 독서 효능감, 독서 몰입’에 주목을 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도’란 “호오(好惡)의 정도를 가지고 특정 대상을 평가함으로써 표현되는 심리적 경향성을 의미한다(정혜승, 2006:389).” 따라서 독서 영역에서 태도는 “개인이 책이나 독서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반응하는 학습된 성향(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6)”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면 그 대상에 대한 동기도 유발되기가 쉽다는 점에서 독서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점차 독서를 멀리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독서 태도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논의는 많이 진행되었다. 정혜승(2006)은 읽기 태도가 개인의 자아 계발과 실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읽기 태도는 읽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설명, 예측해줄 수 있으며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능이나 전략과 같은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동기를 갖도록 정의적 영역의 교육에도 관심을 쏟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자아실현 같은 외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읽기에서 태도는 독서 자체나 독서 교육 측면에서도 의의를 지니는데 “Sperling & Head(2002)는 긍정적인 읽기 태

도와 높은 동기는 읽기의 성공을 좌우하는 주요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Wang(2000)은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문식성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정혜승, 2006:385 재인용).” 그리고 최숙기(2014)는 독자의 읽기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읽기 행동이 활발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읽기 성취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러한 독서 태도와 관련된 독서의 정의적 요인으로는 독서 동기, 독서 효능감, 독서 몰입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독서 태도의 범위를 넓게 잡아 독서 태도란 독서 선호도, 독서 동기, 독서 효능감, 독서 몰입이 영향을 끼치고 독서에 대한 인식이나 자세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본다. 따라서 독서 태도에 대한 주요 분석 요인으로 독서 동기, 독서 효능감, 독서 몰입을 설정하는 한편 각 요인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독서 동기, 독서 효능감, 독서 몰입의 개념 (이순영, 2015:62)

| 용어                                | 개념   |
|-----------------------------------|--|
| 독서 동기<br>(reading motiv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 행위를 촉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시키는 독자의 다면적인 심리 구조</li> <li>- 내재적 독서 동기 : 독서 효능감, 호기심, 몰입, 독서에 대한 가치 인식, 자기 선택권 등 독자의 내적인 요인에 의해 촉구되는 자기목적적인 동기</li> <li>- 외재적 독서 동기 : 독서와 관련된 경쟁, 성적, 칭찬, 인정, 별 등의 외적인 자극이나 행위 후 주어질 결과에 의해 독서 행위가 유발되는 것</li> </ul> |
| 독서 효능감<br>(reading self-efficac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독서 능력과 성공적인 독서 행위에 대한 독자의 기대와 믿음</li> </ul>   |

|                               |  |
|-------------------------------|--|
| 독서 몰입<br>(reading engage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한 문식 경험과 상황하에 독자가 독서 행위에 인지적·정의적으로 몰입하는 상태, 또는 몰입 상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li> <li>• 독서활동에 개인의 모든 주의가 완전히 집중되면서 시간이 무의미해지고 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반하는 심리적 과정</li> </ul> |
|-------------------------------|--|

이순영(2006)은 독서와 관련하여 이처럼 정의적 요인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몰입 독서와 같은 정의적 요소가 학습자의 독서 성취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취를 방해하는 환경적 장애 요인을 극복하게 한다(이순영, 2006:10).”라고 하였다. 또한 “독서 동기와 몰입을 강조하는 독서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의 내재적 동기화 같은 정의적 효과뿐만 아니라 전략 사용 능력의 발달과 같은 인지적 발달도 도모하고 있다(이순영, 2006:11).”라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독서 동기와 독서 몰입 외에도 독서 효능감에 대해서는 최숙기(2009)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읽기 효능감 관련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최숙기(2009)는 그 연구에서 “읽기 효능감은 읽기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최숙기, 2009:534)”이며, 읽기 효능감 같은 정서적 요인이 읽기 과정의 인지적 노력에 대한 동기를 북돋아 주고 읽기를 수행하는 행동이나 행위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들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독서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독서 태도를 비롯한 독서의 정의적 요인들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서의 정의적 요인들은 독서 행위나 독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높여 양질의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이는 다시 후속 활동을 유발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순영, 2015).

슬로리딩 독서의 경우 읽기 활동 과정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한 편의 글을 읽는 경험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독서 태도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독서 태도는 기존의 논의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양질의 독서 경험(이순영, 2015)과 실제적인 독서 활동의 활성화(최숙기, 2014)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슬로리딩을 통한 독서 태도 변화를 분석하면 슬로리딩이 중학생들의 독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한 알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3. 읽기와 쓰기를 연계한 표현력

‘표현력’이란 자신의 생각을 구조화하여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현력이 좋다.’라는 것은 내용이 양적으로 풍부하다는 것과 그 내용이 질적으로 유의미하고 짜임새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적 차원에서 표현력이 좋다는 것은 양적인 차원에서 사용된 ‘단어’가 풍부하고 질적인 차원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바탕으로 전개한 ‘글 내용’과 ‘글 구조’가 적절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슬로리딩을 접목한 독서 수업 효과의 한 부분으로 글쓰기 표현력의 신장을 제시하고 ‘단어’, ‘글 내용’, ‘글 구조’ 차원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표현력의 신장 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슬로리딩을 주목할 만한 이유는 슬로리딩이 읽기와 쓰기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 즉, 슬로리딩은 단순하게 그 속도를 느리게 하여 천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천천히 읽기 위해 단어와 문장, 문단을 강조하는 등 사실적 독해와 더불어 읽은 것을 바탕으로 한 표현 활동을 함께 강조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슬로리딩은 표현 활동 중에서도 쓰기 활동을 특히 강조하였으나 학습자의 즐거움이나 상황에 맞게 말하거나 그리기, 신체 활동 등 다른 분야의 표현 역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학교 현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융복합형 수업을 국어 교과 중심으로 실현하기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9)</sup>.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현 활동 중 특히 읽기와 쓰기의 연계를 통한 글 표현력 신장에 주목하고자 한다<sup>10)</sup>. 기존 연구에서도 읽기와 쓰기의 연계를 통한 교육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승(2004)은 학교 현장에서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읽기와 쓰기가 서로 의미 구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 서로 상승효과를 줄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학습이 일어나야 하며 둘의 연계가 인위적이지 않고 과정 중심으로 지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김명순(2004)은 언어활동 중 “독서와 작문은 문자 언어를 다루는 능력으로서 다른 과목 학습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능력(김명순, 2004:61)”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언어 사용의 실체를 고려할 때 양자는 하나의 언어 사용 능력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한편 송지연(2015)은 “읽기와 쓰

9)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국어’가 지니는 또 하나의 특성은 국어 교과가 다른 교과의 학습 및 비교과 활동과 범교과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이다. ‘국어’는 범교과적 내용이나 주제를 담은 담화나 글, 작품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의 활동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국어’의 교수·학습과 평가는 학습자가 다양한 차원의 통합적 활동을 통하여 교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교육부, 2015).

10) 본 연구 역시 처음에는 슬로리딩 계획을 세울 때 말하기나 신체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였었다. 그러나 2020년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의 방역 수칙이 강화되고 단축 수업이 진행되는 등 학사 일정이 빈번하게 변동됨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 생겼다. 토의·토론 활동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래도 직접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없었던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가 사고 과정상 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포함할 수 있다(송지언, 2015:14).”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를 혼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고, 그 아이디어들에 대해 보다 사려 깊은 고찰할 할 수 있다<sup>11)</sup>는 점에 주목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요약문 쓰기 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읽기와 쓰기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필요하고 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슬로리딩 활동을 통해 중학교 학습자들이 쓰기 활동의 표현력 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향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단어와 문장, 문단 측면에서 양적 데이터와 병행한 질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학습자들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 4. 언어네트워크 분석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표현력을 단어, 글 내용, 글 구조, 차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본 연구에서는 슬로리딩 수업 후 표현력이 어떻게 신장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때 언어네트워크란 텍스트 안에 등장하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의미망으로, 글에 사용된 단어 간의 관계를 수치와 그림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네트워크 프로그램은 텍스트 자료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와 각 단어들 사이의 관계, 단어 자체의 사용 빈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

11) 송지언 재인용. R. J. Tierney & T. Shanahan(1991),

한편 언어네트워크 분석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정덕호(2018)의 연구에 실린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인터넷 매체의 확산에 따라 빅데이터(big data)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화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여 특정 개념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Hopkins & King, 2010). 이런 분석 방법 중 하나가 언어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기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법은 사회네트워크 분석법을 언어에 적용한 방법으로서 다량의 텍스트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료 처리, 정제, 분석의 전 과정이 재현 가능한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할 수 있어(박종희, 박은정, 조동준, 2015) 기존의 내용 분석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공유된 상징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구성 요소들 간의 구조적 시스템을 파악하고(Wasserman & Faust, 1994), 주요 단어 상호간의 연결 관계와 개념 사이의 연결 양식을 가시화함으로써 추상적인 의미 구조를 구체화하는 데 편리하다(심준섭, 2011; 이준기, 하민수, 2012; 이해준, 이동일, 이주현, 2010; Doerfel & Barnett, 1999) (정덕호, 2018:91).

따라서 이를 통해 언어네트워크 분석이란 다량의 텍스트를 빅데이터화 하여 단어 간의 연결 관계와 그 특성을 시각화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할 경우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질적 연구의 한계(김미숙, 2006)를 보완하는 효과를 지닌다(정동권, 2021:54).”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주로 활동지와 설문지를 이용하여 슬로리딩을 통한 학습자들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나, 표현력이란 양적인 측면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이 작성한 글의 단어 사용 양상 역시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Y중학교 1학년 3개 반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Y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슬로리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본 연구자가 2020학년도에 연구 대상이 되는 Y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유학년제 국어 교과 수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 내 연계가 필요한 슬로리딩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며 학생들을 관찰하기가 용이하였다.

둘째, 책의 해를 기념하여 2018년에 실시한 ‘독자 개발 연구’에 따르면 중등학교기는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1차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Y중학교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모님의 강요나 사교육에 의존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배움에 대한 흥미가 낮고 학업 성취도 역시 인근 학교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읽고 쓰는 것을 강조하는 슬로리딩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나 관심뿐 아니라 학습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실시하면서 슬로리딩 수업을 진행한 실질적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이다. 다만, 사전 설문 조사의 경우 2020년 5월에 실시한 것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래는 이 연구 역시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한 1학기부터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Y중학교 학생들이 실제 학교에는 6월이 되어서야 등교를 하는 등 1학기는 장기적인 호흡을 필요로 하는 슬로리딩 수업을 예측하고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사전 설문은 미리 5월에 온라인으로 실시한 것을 활용하되, 실제 슬로리딩 수업은 2학기에 설계하고 진행하게 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 2. 연구 절차

한편 본 연구는 크게 성취기준 분석, 제재 글 선정, 활동 내용 구상, 적용 및 수정이라는 네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이 절차들은 큰 틀에서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필요에 따라 이전 단계로 회귀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각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취기준 분석’은 앞서 설정하였던 슬로리딩의 원리 중 첫 번째인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를 염두에 두고 실시하였다. 즉, 하나의 성취기준이 아닌 둘 이상의 성취기준을 연계함으로써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차시를 확보하고 그 안에서 학습자들이 충분히 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슬로리딩이란 본래 읽기와 쓰기를 강조하는 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3학년 국어 성취기준 중 슬로리딩 수업에 필요한 성취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전체적인 활동을 계획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사문 슬로리딩 수업 1, 2를 진행하는 동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9국02-08]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편의 글을 읽는다.’를 공통 성취기준으로 설정하고 기사문 슬로리딩 수업 1에서는 ‘[9국03-04]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쓴다.’를, 기사문 슬로리딩 수업 2에서는 ‘[9국02-03] 읽기 목적이거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약한다.’와 ‘[9국03-08]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한다.’를 수업에 연계하여 진행할 성취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제재 글 선정’을 진행할 때는 역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슬로리딩의 원리 중 ‘도전적인 제재 글 선정’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였다. 이때 ‘도전적’이라는 것은 제재

글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와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도전적인 제재 글’은 그 목표를 어느 방향으로든 설정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도전적인 제재 글’의 초점을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내용이 담겨 있어 생각을 곱씹으며 읽을 만한 글’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Y중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Y중학교의 경우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업 성취도 격차가 다소 크고 학업 성취도의 평균 역시 다소 낮은 특성을 보이는 학교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제재 글을 보고 읽을 만하다고 느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생각을 곱씹으며 점점 깊이 있는 사고 활동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하여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은 코로나19로 단축 수업이 진행되고 여건 상 모든 학생에게 1인 당 1권의 책을 주고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함께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편의 기사문을 슬로리딩의 제재 글로 선정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활동 내용 구상’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읽기와 쓰기 활동 중심’이라는 원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독서와 작문을 연계한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충분히 살펴보았던 바, 본 연구에서도 슬로리딩을 통한 국어적 역량의 신장이 학습자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슬로리딩의 활동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기사문 슬로리딩 수업 1에서는 학습자들이 자료 찾으며 읽기 활동과 연계하여 글을 읽고 사전, 사후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사문 슬로리딩 수업 2에서는 학습자들이 자료를 찾아 읽는 것뿐 아니라 글을 요약하며 읽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올린 다음 이를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적용 및 수정’ 단계에서는 실제 슬로리딩 활동을 수업에 적용하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이나 학사일정 변동 등에 따라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진행은 융통성 있게 조절하였다. 그리고 ‘분석’ 단계에서는 슬로리딩 수업에서 학생들이 작성하였던 활동지나 설문 내용 등을 분석하여 슬로리딩 수업의 구체적인 효과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슬로리딩 수업 결과 분석에 사용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도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검사 및 분석 도구

#### 가. 활동지

본 연구에서는 슬로리딩 수업의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데 크게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와 설문지, 언어네트워크,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활동지는 학생들이 슬로리딩 활동을 진행하며 작성한 결과물들을 의미하는데 블랜디드 러닝 수업이 진행된 상황을 고려하여 크게 종이 활동지와 온라인 활동지로 구성하였다. 특히 종이 활동지는 개인적인 결과물을, 온라인 활동지는 패들렛을 활용하여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결과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기사문 슬로리딩 종이 활동지 1

중학교 1학년 ( )반 ( )번 이름:

## "'깜깜이' 쓰지 않겠습니다"... '언어 감수성' 보여준 중대본의 결정

입력2020.08.31. 오후 7:48  
 수정2020.08.31. 오후 8:56

시각장애인들, '깜깜이' 표현 개선 요청  
 중대본, '감염경로불명' 등으로 변경

"'깜깜이 감염'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깜깜이 감염' '깜깜이 환자'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돼왔다. 방역본부가 앞으로는 '깜깜이 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31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개선 요청을 중대본이 받아들여 '깜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깜깜이'는 '어떤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데이터 무어사전)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돼왔다. 그러나 시각장애를 비하하는 차별적 표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대본은 "저희도 그런(깜깜이 감염)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국민들 의견을 받아들여 그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감염경로 불명'이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라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중대본의 발표에 대해 "사려 깊은 결정을 환영한다", "언어의 감수성을 보여줬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저서 『언어의 물다리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언어 감수성이 필요하다."면서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의 감수성을 갖는 성찰적 말하기와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의 감수성을 갖는 배려의 듣기를 통해 언어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하나 기자 [ihn21@womennews.co.kr](mailto:ihn21@womennews.co.kr)  
 (출처 : 이하나, "'깜깜이' 쓰지 않겠습니다"... '언어 감수성' 보여준 중대본의 결정, <여성신문>, 2020.08.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10&aid=0000080352>, 2020.08.31.)

|  |
|--|
| 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 ) |
|  |
|  |
|  |
|  |
|  |
|  |

[그림 2] 기사문 슬로리딩 종이 활동지 2

국어/독서 활동지

들어볼래요? 우리가 들려주는 환경 이야기!

4. 생활 속의 글과 표현  
 (1) 요약하기

중학교 1학년 ( )반 ( )번 이름 : ( )

▶ 이번 단원 핵심 개념 : ( ) → 말이나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활동

| 방법  | 설명   |
|-----|--|
| 선택  | ( ) 문장이나 ( )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                    |
| ( ) | 덜 중요하거나 ( )적인 내용, 구체적인 예시, ( )되는 내용 등을 지우는 것 |
| ( ) | 나열된 사례나 개별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 ) 개념으로 나타내는 것    |
| ( ) |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을 직접 만들어 내는 것              |

▶ 환경 기사문 요약하며 읽기

1. 환경 기사문을 문단별로 요약하며 읽은 뒤 기사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활동지에 간추려 정리해보자.

---

---

---

---

---

---

---

---

2. 간추린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찾아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보자.

예 :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분리수거를 해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

---

---

---

---

---

3. 자신이 만든 질문 중 토의 논제와 관련하여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골라 패들렛에 공유해보자.

---

---

[그림 3] 기사문 슬로리딩 온라인 활동지 1

+ 61 • 3개월

## 환경기사문 읽고 토의 논제 생각 깨우기

토의 논제 페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와 관련하여 생각한 만한 질문을 찾아 올려보자. (자신의 반대 해당하는 곳에 올릴 것. 수업과 무관하거나 무리한 언행은 무통보식 제형. 제무에 허변을 꼭 밝혀줄 것)

2023년 10월 10일

|  | ★ 공지사항 ★                                    | 1반 (1번~14번)                                     | 1반 (15번~28번)   | 2반 (1번~14번)   | 2반 (15번~29번) |
|--|---|---|--|---|--------------|
| <p>다음 시간 토의 논제</p> <p style="background-color: #f0e0e0; padding: 2px;">페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p>                   | <p>페플라스틱을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무엇인가?</p> | <p>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p> | <p>가정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p>   | <p>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무엇이 있을까?</p>                               |              |
| <p>활동 안내</p> <p style="background-color: #fff9c4; padding: 2px;">기사문을 읽고 만든 질문 중 위 토의 논제와 관련하여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골라 패들렛에 공유해보자.</p> | <p>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p>     | <p>플라스틱이 우리한테 어떤 피해를 줄까?</p>                    | <p>1. 페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br/>2. 어쩌다 우리는 플라스틱이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세상까지 있을까?<br/>3. 플라스틱 대란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p> | <p>1.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br/>2. 플라스틱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p> |              |
| <p>주의사항</p> <p style="background-color: #fff9c4; padding: 2px;">1. 제무에는 허변을 적을 것</p>   | <p>플라스틱을 재활용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일까?</p>        | <p>페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어떻게 하면 줄여 줄 수 있을까?</p>           | <p>플라스틱이 플라스틱 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p>  | <p>한국이 플라스틱 소비량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p>                                       |              |

[그림 4] 기사문 슬로리딩 온라인 활동지 2



+ 54 • 3개월

## '우리가 들려주는 환경 이야기' - 미래 사회를 위한 환경 정책 제안하기

미래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올려주세요 (작성 시 왼쪽 공지사항 글 참고, 제목은 학교 이니셜(학번으로 변경바람) 수업 내용과 무관한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아래 공지사항 내용 필독! ★

이 공지사항 아래에는 글을 쓰지 말아주세요. 글 내용이 필독은 경우 스크롤을 내리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

1. 제목 설정

자신이 올릴 글의 제목은 학교 이니셜+학번으로 정해주세요. (예: 응소중 1학년 3반 30번 - YS1330)

♡ 0

2. 영역 선택

'미래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제안해보는 활동

+

플라스틱

물이나 음료수에 라벨을 부착하지 말자.

♡ 1

마트에 배치되어 있는 비닐이나 박스를 줄이거나 없애고 고객들에게 장바구니를 권유하거나(마트에도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고객(예컨 포인트 같은 것)을 적립해준다.

♡ 2

플라스틱을 사용할시 벌금은 물려하

+

대기

학교에서 냉 난방을 틀었을 때 주기적으로 환기 시키기.

♡ 0

학교에서 냉 난방을 틀었을 때 주기적으로 환기 시키기.

♡ 0

토양

쓰레기를 불법매립하는 사람에게 모든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처리비용이 없다면 자신의 힘으로 자가매립한 쓰레기들을 모두 치우게끔 법률개정

♡ 1

그외 / 종합 / 기타

플라스틱 적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미생물이 분해하기 쉬운 플라스틱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자.

♡ 2

## 나. 설문지

다음으로 설문지는 주로 학습자들이 독서와 슬로리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활용하였다. 사전 설문지와 사후 설문지, 추가 설문지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전 설문지는 2020년 5월에, 사후 설문지는 2021년 2월에 실시하고 추가 설문지는 슬로리딩 수업 종료 후 기존 설문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거나 학습자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였다. 한편 설문은 구글 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의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학습자들이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 안에 학번과 이름을 밝힐 수 있게 구성하였다.

물론 이러한 설문지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응답자의 문장 표현 능력에 의존해야 하고 질문에 대한 응답 이외의 것을 파악하기 힘들다(김승환, 1984:49).”라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활동지나 추가 설문지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며, 단점보다는 “일시에 다수의 대상을 조사할 수 있고, 대상자의 의견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수 있고, 대상자의 심리적 환경 조사에는 조사자의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많은 자료를 조직적으로 모으는 데 좋은 방법이고(김승환, 1984:49)”, 백분율로 결과를 나타낼 경우 통계 처리를 통해 결과를 이해하기도 쉽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활용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설문의 문항은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독서 태도와 그 관련 요인인 독서 동기, 독서 효능감, 독서 몰입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추가 설문지의 경우 이순영(2015)에서 언급한 독서의 정의적 요인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사전, 사후 설문지는 문항을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추가 설문지를 포함하여 활용한 설문지의 문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2)</sup>.

---

12) 구글 폼을 활용하여 실시한 설문지의 원본은 부록 부분에 첨부하였다.

[표 6] 사전·사후 설문 문항

| 문항 번호 | 내용  |
|-------|---|
| 1     | 한 달에 보통 책을 몇 권 정도 읽나요?                                      |
| 2     | 주로 어떤 이유로 책을 읽는 편인가요?                                       |
| 3     | 자신은 평소 독서 활동을 얼마나 좋아하나요?                                    |
| 4     | 성공적인 독서 수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 5     | 평소에 자신은 성공적인 독서를 얼마나 잘 수행한다고 생각하나요?                         |
| 6     | 자신은 독서를 할 때 얼마나 집중해서 읽는 편인가요?                               |
| 7     | 자신은 스스로 평소에 독서를 꾸준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나요?                   |
| 8     | 독서를 통해 자신이 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9     | 자신이 생각하는 ‘읽기 능력’이란 무엇인가요?                                   |
| 10    |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읽기 방법은 무엇일까요?                           |
| 11    |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주변 사람(친구, 형제자매, 부모 등)에게 이야기하며 공유하는 편인가요? |
| 12    |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은 주로 언제 공유하는 편인가요?                         |

[표 7] 추가 설문지 1 문항 13)

| 문항 번호 | 내용  | 비고                      |
|-------|---|-------------------------|
| 1     | 슬로리딩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의 독서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글 요인’은 무엇인가요?                                |                         |
| 2     | 슬로리딩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의 독서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내적 요인’은 무엇인가요?                               |                         |
| 3     | 슬로리딩 활동을 진행하며 자신의 독서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교실 환경 요인’은 무엇인가요?                               |                         |
| 4     | 슬로리딩 활동이 자신의 ‘독서 동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추가<br>문항<br>제시<br>(주관식) |
| 5     | 슬로리딩 활동이 자신의 ‘독서 선호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 6     | 슬로리딩 활동이 자신의 ‘독서 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 7     | 슬로리딩 활동이 자신의 ‘글에 대한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 8     | 슬로리딩에서 진행한 생각공유하기 활동 (언어 감수성 글쓰기, 패들렛을 활용한 토의하기 등)이 자신의 독서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 9     | 슬로리딩 활동이 스스로 글을 찾아 읽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 10    | 슬로리딩 활동이 꾸준히 글을 읽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 11    | 슬로리딩 활동에서 배운 글을 천천히 읽는 방법이 자신이 스스로 독서 활동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절하고 있다는 믿음을 기르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13) ‘비고’ 부분의 ‘추가 문항 제시(주관식)’에 해당하는 경우 각 문항마다 ‘위 문항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주관식 문항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수집함.



## 다. 언어네트워크 분석

다음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언어에 적용한 방법으로 이때 사회네트워크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망을 의미하며, 사회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람 사이의 친밀도에 따라 연결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사람을 단어로 간주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려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어 간의 의미론적 연관(semantic association)을 중요하게 여긴다(Wassettman and Faust, 1994). 이처럼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어떤 단어와 함께 출현하는 단어 사이의 공출현 빈도를 기반으로 하여 단어 사이의 의미론적 연관성을 알아봄으로써 학습자가 어떤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해주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Jung, 2012) (박경진 외, 2013:176).”

이러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워드로 변환하여 단어를 다듬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제한점을 지니는 동시에 시각적 네트워크 자료와 각 단어 간 연결 관계를 숫자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언어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슬로리딩 활동을 진행하면서 쓴 사전 글쓰기 결과물과 사후 글쓰기 결과물의 단어를 분석하는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글쓰기 결과물 55편과 사후 글쓰기 결과물 55편을 각각 워드로 변환하면서 단어를 다듬는 선행 작업을 실시하였다<sup>14)</sup>.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한 어절을 하나의 분석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선

행 작업은 크게 보면 유의미한 단어는 남기고 상대적으로 문법적 기능만 수행하는 형태소나 단어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쓴 글 중 ‘감염 경로 불명’처럼 하나의 의미 단위로 볼 수 있는 용어는 띄어쓰기 없이 ‘감염경로불명’과 같은 한 어절의 단어로 정리하였다. 이 외에도 용언은 기본형의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좋아하는, 좋아해서’ 등 활용형으로 쓰인 단어가 있을 경우 ‘좋아하다’처럼 형태를 바꾸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는 서술격조사 ‘이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이 쓴 글 중 ‘말이, 말을, 말로’ 등으로 쓰인 부분이 있을 경우 모두 ‘말’이라고 단어를 정리하였다.

온점이나 마침표 등 문장 부호도 삭제하였다. 그리고 복수 접미사 ‘들’, 의존명사와 ‘하다’ 단독 동사의 경우 형태소 분류 면에서는 의미 형태소에 해당하지만 상대적으로 개별 단어 의미 특성은 약한 편이라는 점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단어를 정리하였다. 또한 의미는 동일하지만 표현이 다른 단어는 하나로 통일하였다. 예를 들어 담화 표지 중 ‘첫 번째’와 ‘첫째’는 모두 ‘첫째’로 통일하고 ‘두 번째’와 ‘둘째’, ‘세 번째’와 ‘셋째’ 등도 동일하게 ‘둘째, 셋째’로 정리하였으며, ‘코로나19’와 ‘코로나’는 ‘코로나’로, 부정 부사 ‘아니’와 ‘안’은 ‘안’으로 통일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여 실제 학생이 쓴 글과 이를 워드로 변환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 8]와 같은 예를 제시할 수 있다.

---

14) 단, 언어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55명의 학생이 제출한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이 되는 학생은 총 78명이나,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물을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23명의 학생이 제출한 사전 글쓰기 활동지 파일에 문제가 생겨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 글쓰기 역시 활동도 본래는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전 글쓰기와 동일하게 55명의 학생이 제출한 결과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표 8] 언어네트워크 단어 변환 작업 사례

| 학생이 쓴 글 예시 (사후 글쓰기)  |
|--|
| <p>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 <u>한성함</u>님)</p> <p>깜깜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지 않을 수 있다. 깜깜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라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깜깜이라는 표현은 어둠다는걸 뜻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깜깜이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앞서 말했듯이 어떤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라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이 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깜깜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쉬운 표현이다. 그 표현에 대해 너무 민감히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다.</p> |
| 단어 변환 작업 결과 예시   |
| <p>깜깜이 표현 어떤 사람 기분 나쁘다 어떤 사람 아무런지 않다 있다 깜깜이 표현 어떤 사실 대하다 전혀 모르다 행위 또는 그런 행위 사람 뜻하다 하지만 깜깜이 표현 어둠다 뜻하다 시각장애인 입장 기분 나쁘다 하지만 사용하다 깜깜이 그런 표현 아니다 앞서 말하다 어떤 사실 대하다 전혀 모르다 행위 또는 그런 행위 사람 뜻 사용 되다 그런 의미 사용하다 아니다 깜깜이 사람 이해하다 쉽다 표현이다 그 표현 대하다 너무 민감히 반응하다 같다</p>   |

둘째, 단어 변환 작업을 마친 후에는 “단어 간의 의미론적 연관을 통한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하기 위해 Park and Leydesdorff(2004)가 영어 위주의 내용 분석 프로그램인 Fulltext를 한국어에 맞게 변형한 KrKwi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어의 출현 빈도를 산출하였다. 이후에는 KrTit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단어를

제외하고 선정된 단어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단어X단어 공출현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Ucinet 6 for windows 내의 NetDraw를 활용하여 공출현 매트릭스를 지도로 시각화하였다(박경진 외, 2013:176).”

## 라.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한 슬로리딩 프로그램은 기사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슬로리딩’이라는 독서법을 다소 낯설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 내용을 설계하였다. 즉, 학습자들이 글에 시선과 생각을 어떻게 머무르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떻게 천천히 읽을 수 있는지를 연습할 수 있는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 1’과 본격적으로 읽기와 쓰기 활동을 확장하여 슬로리딩을 적용해볼 수 있는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 2’로 수업을 설계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차시별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 1

| 슬로리딩과 언어 감수성                 |   |      |
|------------------------------|---|------|
| 관련<br>성취기준<br>(교육부,<br>2015) | [9국02-08]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며 한 편의 글을 읽는다.<br>[9국03-04]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쓴다.  |      |
| 활용<br>기사                     | 이하나, “‘깜깜이’ 쓰지 않겠습니다”. … ‘언어 감수성’ 보여준 중대본의 결정, <여성신문>, 2020.08.31.,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001&amp;oid=310&amp;aid=000008035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001&amp;oid=310&amp;aid=0000080352</a> , 2020.08.31. |      |
| 차시                           | 활동 내용   | 비고   |
| 1                            | 수업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br>-2학기 독서 시간에는 무엇을 하나요?15)-   | 온라인  |
| 2                            | 동기 유발 및 생각 깨우기<br>-책 읽기가 왜 필요한가요?-  | 오프라인 |
| 3                            | 슬로리딩 없이 기사문 읽기 + 1차 글쓰기<br>-‘깜깜이’ 사용해도 괜찮을까? ①-   | 오프라인 |
| 4                            | 슬로리딩 방법 익히기, 자료 영상 시청<br>-자료 찾으며 읽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 온라인  |
| 5                            | 자료 찾으며 기사문 읽기<br>-슬로리딩으로 천천히 생각하며 기사문 읽기-   | 온라인  |
| 6                            | 슬로리딩으로 기사문 한번 더 읽기 + 2차 글쓰기<br>-‘깜깜이’ 사용해도 괜찮을까? ②-   | 오프라인 |
| 7                            | 활동 내용 공유 및 전체 피드백<br>-천천히 읽기,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 온라인  |

15) 본 연구를 진행한 Y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 시간 중 매주 1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활발한 독서 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평소에는 도서관 연계 독서 활동,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 읽는 교실, 교과와 연계한 독서 활동 등 다양한 독서 활동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10]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 2

| 슬로리딩과 환경 감수성                 |  |      |
|------------------------------|--|------|
| 관련<br>성취기준<br>(교육부,<br>2015) | [9국02-08]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며 한 편의 글을 읽는다.<br>[9국02-03]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약한다.<br>[9국03-08]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한다.                             |      |
| 활용<br>기사                     | 이한듬 외, “코로나19가 부른 나비효과.. 폐플라스틱 쓰나미 온다”, <MONEYS>, 2020.11.08., <a href="https://news.v.daum.net/v/20201108065229110">https://news.v.daum.net/v/20201108065229110</a> , 2020.11.10. |      |
| 차시                           | 활동 내용  | 비고   |
| 1                            | 동기유발 + 요약하기 개념 학습<br>-뭘 잘해야 잘 간추렸다고 소문이 날까?-   | 오프라인 |
| 2                            | 요약하기의 방법 알기 1(선택, 삭제)<br>-선택, 삭제의 방법으로 요약은 어떻게 할까?-  | 오프라인 |
| 3                            | 요약하기의 방법 알기 2(일반화, 재구성)<br>-일반화, 재구성의 방법으로 요약은 어떻게 할까?-  | 온라인  |
| 4                            | 환경 보조 자료 영상 시청 + 기사문 훑어보기<br>-쓰레기도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 알고 있어?-   | 온라인  |
| 5                            | 슬로리딩과 기사문 문단별 요약하기 1(시범 보이기)<br>-환경 기사문, 천천히 읽고 요약해볼래? ①-  | 오프라인 |
| 6                            | 슬로리딩과 기사문 문단별 요약하기 2<br>-환경 기사문, 천천히 읽고 요약해볼래? ②-  | 오프라인 |

|    |   |      |
|----|---|------|
| 7  | 슬로리딩과 기사문 문단별 요약하기 3<br>-환경 기사문, 천천히 읽고 요약해볼래? ③-                         | 오프라인 |
| 8  | 전체 요약문 작성하기<br>-우리가 읽은 기사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 오프라인 |
| 9  | 요약 활동 내용 공유 및 피드백<br>-나는 이렇게 줄였는데 너는 어떻게 줄였어?-                            | 온라인  |
| 10 | 토의 논제 관련 생각 깨우기 + 온라인 글쓰기 예절<br>-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 온라인  |
| 11 | 패들렛으로 온라인 토의하기 1<br>-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 온라인  |
| 12 | 패들렛으로 온라인 토의하기 2<br>-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 온라인  |
| 13 | 토의 활동 내용 공유 및 피드백<br>-플라스틱 문제, 이제 남의 일이 아니지?-                             | 온라인  |
| 14 | 환경 포럼 영상 시청하기<br>-우리나라의 환경 정책, 어떤 점에 공감해?-                                | 온라인  |
| 15 | 슬로리딩 사후 설문지 및 활동 소감 작성하기  | 온라인  |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 1’에서는 학습자들이 전략을 활용해서 글을 천천히 읽는 방법을 경험하고 동일한 주제로 사전 글쓰기와 사후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어찌 보면 일종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계획한 이유는 먼저 글을 천천히 읽는다는 것이 말로는 쉬울지 몰

라도 그 방법을 모르는 학습자들에게는 자칫 읽기 활동이 늘어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길이가 짧아서 쉬워 보이는 글도 그냥 읽었을 때와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었을 때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쓰기 활동을 통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들 수 있다. 슬로리딩을 통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해주면 앞으로 다른 글을 읽을 때도 슬로리딩에 대한 동기를 더 쉽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표 10]에 제시한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 2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읽기와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을 좀 더 직접적으로 끌어와 적용한 것에 해당한다. 특히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요약하며 읽기’에 대한 성취기준을 끌어와 적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요약하기와 연계한 슬로리딩 활동을 진행하며 자신의 시선과 생각이 제재 글에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기사문을 읽은 후에는 온라인 담벼락 공유 시스템인 ‘패들렛’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토의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한 후에는 14차시에서 실제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과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정책과 제도 변화 포럼 영상을 시청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기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던 영상이었으나 앞 차시에서 슬로리딩으로 함께 천천히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글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으면 읽은 내용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관련된 다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가길 바랐기 때문이다.

## IV. 결과 분석

앞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슬로리딩 수업은 2020학년도 2학기인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IV장에서는 슬로리딩 수업을 통해 수집한 활동지, 설문지, 언어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표현력의 변화는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단어, 글 내용, 글 구조,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독서 태도는 독자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독서 선호도, 독서 동기, 독서 효능감, 독서 몰입 같은 정의적 요인과 독서를 대하는 인식이나 자세 등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것으로 보고자 한다. 수업 시간에 활용한 활동지를 통해서 언어네트워크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표현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바, 먼저 사전·사후 글쓰기 활동지에 나타난 표현력 변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표현력

본 연구에서는 슬로리딩과 연계한 표현 활동으로 쓰기 활동을 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른 영역의 표현 활동을 많이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학습자들에게 독서와 작문을 연계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 1의 경우 사전 글쓰기와 사후 글쓰기를 진행하였는데 사전 글쓰기 결과물과 사후 글쓰기 결과물의 비교를 통하여 슬로리딩을 배우기 전과 후 학습자들의 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관찰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사전 글쓰기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본격적인 슬로리딩을 진행하기 전 자신이 평소 글을 읽는 속도대로 기사문을 읽도록 안내하였다. 그 후 학습자들에게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정하게 한 다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글로 작성해보도록 안내하였으며, 활동 결과는 온라인 학습 기간에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단, 학습자들이 사전 글쓰기 활동지를 작성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가정에서 제3자가 과제에 개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되도록 학습자들이 등교한 주에 활동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수합하였다.

그리고 사후 글쓰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글을 천천히 읽을 수 있는지를 배운 학습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묻는 활동지를 제시하고 사전 글쓰기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 결과 사후 글쓰기에서 학생들은 대체로 글의 길이와 내용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이처럼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 1에서 진행한 사전 글쓰기와 사후 글쓰기의 비교를 바탕으로 특히 학습자들의 글이 단어, 글 내용, 글 구조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단어

학생들이 제출한 사전 글쓰기 결과물과 사후 글쓰기 결과물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반적으로 글의 길이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때 글의 길이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글에 사용된 단어의 수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글쓰기에 사용한 단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주요 단어의 사용 양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글을 바탕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 사회를 이루듯이 단어가 마치 사회를 이루는 사람과 같다고 본다. 비록 선행 작업 단계로 인하여 연구자의 주관

이 개입될 수 있다는 여지를 지니고 있으나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와 빈도, 그 단어들 간의 관계를 도표와 그림을 이용한 시각적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를 보완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 1을 통해 제출한 사전·사후 글쓰기 결과물을 분석하였으며, 사용 단어와 빈도의 양상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 단어의 경우 사전 글쓰기에서는 총 290개의 단어가 도출되었으며, 사후 글쓰기에서는 총 568개의 단어가 도출되었다. 단어를 변환하는 작업이 있었음을 감안하여도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사후 글쓰기에서 사용 단어가 278개나 증가한 것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슬로리딩으로 읽은 기사문의 주제어인 ‘깜깜이’의 경우 사전·사후 글쓰기 모두에서 사용 빈도 1위를 차지하였으나 사전 글쓰기에서는 104번, 사후 글쓰기에서는 258번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사전 글쓰기에 비해 사후 글쓰기에서 학생들이 주제어를 훨씬 활발하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서 사전·사후 각각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50개 단어들을 추려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11]과 같다<sup>16)</sup>.

---

16) [표 11]에서 사전 글쓰기와 사후 글쓰기 결과를 비교하여 사용 빈도의 순위가 동일한 단어는 노란색으로, 사후 글쓰기에서 사용 빈도 순위가 내려간 단어는 파란색으로, 사용 빈도 순위가 올라간 단어는 분홍색으로 표시하였다.

[표 11] 사전·사후 글쓰기에서 나타난 상위 50 단어 목록

| 사전 글쓰기 |       |     | 사후 글쓰기 |       |     |
|--------|-------|-----|--------|-------|-----|
| 순위     | 단어    | 빈도  | 순위     | 단어    | 빈도  |
| 1      | 깜깜이   | 104 | 1      | 깜깜이   | 258 |
| 2      | 표현    | 60  | 2      | 표현    | 154 |
| 3      | 시각장애인 | 50  | 3      | 있다    | 140 |
| 4      | 있다    | 44  | 4      | 시각장애인 | 127 |
| 5      | 비하하다  | 34  | 5      | 단어    | 115 |
| 6      | 사람    | 32  | 6      | 사용하다  | 99  |
| 7      | 단어    | 29  | 7      | 쓰다    | 86  |
| 8      | 쓰다    | 29  | 8      | 비하하다  | 85  |
| 9      | 말     | 28  | 9      | 않다    | 84  |
| 10     | 환자    | 27  | 10     | 사람    | 82  |
| 11     | 되다    | 23  | 11     | 말     | 73  |
| 12     | 때문이다  | 23  | 12     | 되다    | 70  |
| 13     | 왜냐하면  | 21  | 13     | 좋다    | 70  |
| 14     | 좋다    | 21  | 14     | 감염    | 58  |
| 15     | 같다    | 18  | 15     | 없다    | 55  |
| 16     | 듣다    | 17  | 16     | 경로    | 54  |
| 17     | 사용하다  | 16  | 17     | 안     | 41  |
| 18     | 않다    | 16  | 18     | 의미    | 41  |
| 19     | 표현이다  | 16  | 19     | 듣다    | 40  |

|    |        |    |    |        |    |
|----|--------|----|----|--------|----|
| 20 | 시각     | 15 | 20 | 생각하다   | 40 |
| 21 | 감염     | 14 | 21 | 같다     | 38 |
| 22 | 경로     | 14 | 22 | 그리고    | 38 |
| 23 | 없다     | 14 | 23 | 알다     | 38 |
| 24 | 장애     | 14 | 24 | 기분     | 36 |
| 25 | 차별적    | 14 | 25 | 뉴스     | 35 |
| 26 | 감염경로불명 | 12 | 26 | 뜻      | 35 |
| 27 | 보다     | 11 | 27 | 아니다    | 33 |
| 28 | 안      | 11 | 28 | 더      | 32 |
| 29 | 코로나    | 11 | 29 | 국어사전   | 31 |
| 30 | 다른     | 10 | 30 | 나      | 31 |
| 31 | 뜻      | 10 | 31 | 보다     | 31 |
| 32 | 기분     | 9  | 32 | 다른     | 30 |
| 33 | 때문     | 9  | 33 | 환자     | 30 |
| 34 | 모르다    | 9  | 34 | 때문     | 29 |
| 35 | 아니다    | 9  | 35 | 그      | 27 |
| 36 | 나      | 8  | 36 | 공식적    | 26 |
| 37 | 말하다    | 8  | 37 | 이유     | 26 |
| 38 | 생각하다   | 8  | 38 | 감염경로불명 | 25 |
| 39 | 알다     | 8  | 39 | 쉽다     | 25 |
| 40 | 행위     | 8  | 40 | 자리     | 25 |
| 41 | 그리고    | 7  | 41 | 나쁘다    | 24 |

|    |      |   |    |      |    |
|----|------|---|----|------|----|
| 42 | 다르다  | 7 | 42 | 때문이다 | 23 |
| 43 | 반대하다 | 7 | 43 | 또    | 23 |
| 44 | 사용   | 7 | 44 | 어렵다  | 23 |
| 45 | 그것   | 6 | 45 | 우리   | 23 |
| 46 | 그래서  | 6 | 46 | 상처   | 22 |
| 47 | 나쁘다  | 6 | 47 | 확진자  | 21 |
| 48 | 비하   | 6 | 48 | 그러하다 | 20 |
| 49 | 생각   | 6 | 49 | 그런   | 20 |
| 50 | 이유   | 6 | 50 | 모르다  | 20 |

[표 11]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 즉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자주 사용한 단어는 사전 글쓰기나 사후 글쓰기에서 상당히 많은 단어가 겹치고 있다는 점이다. 순위에는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33개의 단어가 사용 빈도 상위 50 단어 안에서 서로 겹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깜깜이, 시각 장애인, 단어, 의미’ 등은 슬로리딩이 되는 기사문의 중심 어휘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어휘 역시 사후 글쓰기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용 빈도 외에도 실제 학생들이 글 안에서 해당 단어들을 유의미하게 사용하였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언어네트워크를 그리고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보여주는 연결 중심성과 위세 중심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위 50 단어 중 언어네트워크를 그렸을 때 나타나는 시각적인 복잡함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 빈도 상위 30의 단어를 가지고 먼저 언어 네트워크를 그려 제시하면 다음 [그림 6], [그림 7]과 같다.





[그림 6]과 [그림 7]에서 각 단어에 대응되는 네모난 도형을 노드(Node)라고 한다. 이때 노드의 크기는 해당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즉 위 [그림 6]과 [그림 7]에서 ‘깜깜이’는 사전 글쓰기와 사후 글쓰기에서 둘 다 사용 빈도 상위 30 단어 중 다른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언어네트워크를 좀 더 정밀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그림 6]과 [그림 7]의 연결 중심성과 위세 중심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 12], [표 13]의 형태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표 12] 사전·사후 글쓰기 상위 30 단어 연결 중심성 비교

| 순위 | 사전 글쓰기 |      |       | 사후 글쓰기 |      |       |
|----|--------|------|-------|--------|------|-------|
|    | 단어     | DC   | nDC   | 단어     | DC   | nDC   |
| 1  | 깜깜이    | 1002 | 0.321 | 깜깜이    | 2048 | 0.347 |
| 2  | 표현     | 715  | 0.229 | 표현     | 1201 | 0.203 |
| 3  | 시각장애인  | 539  | 0.173 | 있다     | 1153 | 0.195 |
| 4  | 있다     | 406  | 0.13  | 시각장애인  | 970  | 0.164 |
| 5  | 비하하다   | 375  | 0.12  | 단어     | 912  | 0.154 |
| 6  | 사람     | 251  | 0.08  | 사용하다   | 732  | 0.124 |
| 7  | 단어     | 293  | 0.094 | 쓰다     | 658  | 0.111 |
| 8  | 쓰다     | 221  | 0.071 | 비하하다   | 722  | 0.122 |
| 9  | 말      | 393  | 0.126 | 않다     | 723  | 0.122 |
| 10 | 환자     | 249  | 0.08  | 사람     | 679  | 0.115 |
| 11 | 되다     | 292  | 0.094 | 말      | 921  | 0.156 |
| 12 | 때문이다   | 193  | 0.062 | 되다     | 675  | 0.114 |

|    |        |     |       |      |     |       |
|----|--------|-----|-------|------|-----|-------|
| 13 | 왜냐하면   | 235 | 0.075 | 좋다   | 594 | 0.101 |
| 14 | 좋다     | 189 | 0.061 | 감염   | 774 | 0.131 |
| 15 | 같다     | 147 | 0.047 | 없다   | 460 | 0.078 |
| 16 | 듣다     | 168 | 0.054 | 경로   | 685 | 0.116 |
| 17 | 사용하다   | 156 | 0.05  | 안    | 366 | 0.062 |
| 18 | 않다     | 134 | 0.043 | 의미   | 353 | 0.06  |
| 19 | 표현이다   | 181 | 0.058 | 듣다   | 369 | 0.062 |
| 20 | 시각     | 684 | 0.219 | 생각하다 | 297 | 0.05  |
| 21 | 감염     | 310 | 0.099 | 같다   | 326 | 0.055 |
| 22 | 경로     | 282 | 0.09  | 그리고  | 324 | 0.055 |
| 23 | 없다     | 142 | 0.046 | 알다   | 341 | 0.058 |
| 24 | 장애     | 691 | 0.221 | 기분   | 340 | 0.058 |
| 25 | 차별적    | 153 | 0.049 | 뉴스   | 274 | 0.046 |
| 26 | 감염경로불명 | 149 | 0.048 | 뜻    | 308 | 0.052 |
| 27 | 보다     | 96  | 0.031 | 아니다  | 280 | 0.047 |
| 28 | 안      | 103 | 0.033 | 더    | 291 | 0.049 |
| 29 | 코로나    | 95  | 0.03  | 국어사전 | 264 | 0.045 |
| 30 | 다른     | 105 | 0.034 | 나    | 777 | 0.131 |
| 31 | 뜻      | 103 | 0.033 | 보다   | 291 | 0.049 |

[표 13] 사전·사후 글쓰기 상위 30 단어 위세 중심성 비교

| 순위 | 사전 글쓰기 |       |        | 사후 글쓰기 |       |        |
|----|--------|-------|--------|--------|-------|--------|
|    | 단어     | EC    | nEC    | 단어     | EC    | nEC    |
| 1  | 깜깜이    | 0.436 | 61.654 | 깜깜이    | 0.465 | 65.775 |
| 2  | 표현     | 0.352 | 49.773 | 표현     | 0.317 | 44.776 |
| 3  | 시각장애인  | 0.304 | 43.031 | 있다     | 0.287 | 40.563 |
| 4  | 있다     | 0.199 | 28.104 | 시각장애인  | 0.258 | 36.437 |
| 5  | 비하하다   | 0.206 | 29.064 | 단어     | 0.226 | 32.009 |
| 6  | 사람     | 0.113 | 15.976 | 사용하다   | 0.196 | 27.729 |
| 7  | 단어     | 0.153 | 21.58  | 쓰다     | 0.172 | 24.33  |
| 8  | 쓰다     | 0.114 | 16.115 | 비하하다   | 0.195 | 27.532 |
| 9  | 말      | 0.187 | 26.478 | 않다     | 0.191 | 26.956 |
| 10 | 환자     | 0.116 | 16.453 | 사람     | 0.171 | 24.149 |
| 11 | 되다     | 0.141 | 19.886 | 말      | 0.233 | 32.939 |
| 12 | 때문이다   | 0.094 | 13.299 | 되다     | 0.169 | 23.957 |
| 13 | 왜냐하면   | 0.118 | 16.735 | 좋다     | 0.144 | 20.344 |
| 14 | 좋다     | 0.086 | 12.162 | 감염     | 0.192 | 27.212 |
| 15 | 같다     | 0.077 | 10.956 | 없다     | 0.108 | 15.309 |
| 16 | 듣다     | 0.088 | 12.402 | 경로     | 0.169 | 23.856 |
| 17 | 사용하다   | 0.071 | 9.976  | 안      | 0.093 | 13.154 |
| 18 | 않다     | 0.062 | 8.75   | 의미     | 0.096 | 13.533 |
| 19 | 표현이다   | 0.107 | 15.084 | 듣다     | 0.099 | 14.013 |

|    |        |       |        |      |       |        |
|----|--------|-------|--------|------|-------|--------|
| 20 | 시각     | 0.364 | 51.509 | 생각하다 | 0.074 | 10.519 |
| 21 | 감염     | 0.14  | 19.842 | 같다   | 0.083 | 11.787 |
| 22 | 경로     | 0.12  | 16.91  | 그리고  | 0.079 | 11.112 |
| 23 | 없다     | 0.064 | 9.094  | 알다   | 0.082 | 11.598 |
| 24 | 장애     | 0.368 | 52.097 | 기분   | 0.088 | 12.51  |
| 25 | 차별적    | 0.088 | 12.447 | 뉴스   | 0.064 | 9.093  |
| 26 | 감염경로불명 | 0.066 | 9.273  | 뜻    | 0.082 | 11.541 |
| 27 | 보다     | 0.049 | 6.926  | 아니다  | 0.076 | 10.704 |
| 28 | 안      | 0.051 | 7.246  | 더    | 0.071 | 9.989  |
| 29 | 코로나    | 0.044 | 6.241  | 국어사전 | 0.069 | 9.754  |
| 30 | 다른     | 0.046 | 6.516  | 나    | 0.199 | 28.185 |
| 31 | 뜻      | 0.051 | 7.255  | 보다   | 0.067 | 9.454  |

[표 12]에 제시된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한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얼마만큼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 그 단어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석 지표이다(Son, 2008) (박경진 외, 2013:176-177).” 반면 [표 13]에 제시된 “위세 중심성은 한 노드(단어)가 영향력이 높은 다른 노드(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정도(차혜경 외, 2014:331)”를 나타낸다. 따라서 연결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한 단어가 분석 대상이 되는 다른 단어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세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단어가 중심성이 높은 단어와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동권, 2021).

한편 이러한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였을 때 [표 12]와 [표 13]을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을 읽어낼 수 있다. 하나는 학생들이 슬로리딩 전과 후 둘 다 글을 쓸 때

제제 글이 되는 기사문의 핵심어인 ‘깜깜이’를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글을 쓰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슬로리딩 후 실시한 사후 글쓰기에서는 사전 글쓰기에 비해 학생들이 글의 필자가 되는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 의견 등을 두드러지게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현상에 대해 ‘깜깜이’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12]를 보았을 때 제제 글이 되는 기사문과 학생들이 쓴 글의 핵심 어휘라고 할 수 있는 ‘깜깜이’는 사후 글쓰기에서 연결 중심성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그 정도를 표준화된 점수(nDC)로 환산하면 0.026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상 사전 글쓰기와 사후 글쓰기에서 ‘깜깜이’라는 단어가 사용 빈도 상위 30 단어 사이에서 갖는 연결 중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슬로리딩 활동 후 학생들은 사전 글쓰기보다 훨씬 다양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사이에서는 ‘깜깜이’를 놓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표 13]의 결과와도 연계하여 볼 수 있다. [표 13]의 경우 ‘깜깜이’의 표준화된 위세 중심성(nEC)이 사전 글쓰기와 사후 글쓰기에서 둘 다 60 이상의 높은 중심성 수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깜깜이’는 학생들이 단순하게 많이 사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글 속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어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표 13]에서 ‘깜깜이’의 표준화된 위세 중심성은 사후 글쓰기에서 ‘65.775’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슬로리딩 후 ‘깜깜이’를 핵심어로 하여 글을 쓰는 경향도 더불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학생들은 슬로리딩 결과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어휘는 훨씬 풍부해지면서도 핵심어를 활용하는 역량은 여전히 높게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후 글쓰기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가치관 등을 드러내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와 [표

13]을 보면 대체로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연결 중심성과 위세 중심성도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후 글쓰기 부분에서 이러한 경향을 벗어난 단어가 보이는데 ‘나’라는 단어가 그것이다. 이때 ‘나’의 경우 학생들이 쓴 글에서 ‘나’뿐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같은 구절에 등장하는 ‘내’도 ‘나’라는 단어로 바꾸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이 쓴 글에서 1인칭을 의미하는 것 외에 ‘나’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은 없었다.

한편 이러한 ‘나’라는 단어는 사전 글쓰기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사후 글쓰기에서도 빈도수만 놓고 보면 31을 기록하여 사용 빈도 상위 30의 단어들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2]의 연결 중심성과 [표 13]의 위세 중심성을 보면 ‘나’의 중심성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 빈도 99로 사후 글쓰기에서 빈도 수 6위를 기록한 ‘사용하다’와 거의 맞먹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높은 중심성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사후 글쓰기에서 ‘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부분에서도 ‘나’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한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몇 명의 소수 학생이 자신의 글 안에서 ‘나’를 많이 언급하여 빈도수가 31을 기록하였다면 ‘나’는 사용 빈도 상위 30 단어 안에서 연결 중심성도 낮아야 하고 중요 단어와의 관계를 묻는 위세 중심성 역시 높게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세 중심성이 28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 글쓰기 분석에 사용된 전체 텍스트 중 ‘나’라는 단어는 전반적으로 중요한 단어들과 함께 고르게 분포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한편 이 외에도 [표 11]과 [표 12], [표 13]을 보면 사전 글쓰기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으나 사후 글쓰기에서 새롭게 등장, 혹은 사용 빈도가 증가한 단어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후 글쓰기에서 상위 50의 단어 중 16개의 단어가 사전 글쓰기의 사용 빈도 상위 50의 단어와 겹치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단어 중 ‘의미, 뉴스, 공식적’ 등의 단어는 학생들이 좀 더 유의미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단어의 사용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함께 이번 ‘단어’ 부분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학생들의 실제 글 내용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나. 글 내용

앞서 ‘가. 단어’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슬로리딩 후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전개할 때 기사문의 핵심어인 ‘깜깜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단어를 활용하면서 표현 역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글의 길이도 늘어나고 내용도 풍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내용 면에서는 슬로리딩 후 크게 세 가지 측면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슬로리딩 전에는 학생들이 주어진 논제에 대해 주로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관을 이야기하였다면 슬로리딩 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가치관을 반영하여 글을 쓰는 경향이 증가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회적 의미와 그 사용 맥락을 고려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할 때 역지사지를 고려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를 바탕으로 슬로리딩 후 학생들이 쓴 글의 내용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생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가치관을 반영하여 글을 쓰는 경향이 증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그림 8]에 제시된 학생 A의 사전 사후 글 쓰기 결과를 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8] 학생 A 슬로리딩 사전·사후 글쓰기 활동지(17)

| 학생 A 사전 글쓰기 활동지  |
|--|
| 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 찬성하지 않다. )  |
| 대냐하면 '깜깜이' 라는 표현은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사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
|  |
|  |
| 학생 A 사후 글쓰기 활동지  |
| 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 찬성한다. )   |
| 내가 찬성하는 이유는 <u>첫째</u> '깜깜이' 라는 표현은 '감염경로불명' 이라는 표현 보다 더 간접하고 의미가 더 쉽게 전달된다. 깜깜이는 3급사이지만 감염경로불명 은 6급사 이므로 깜깜이 라는 표현이 더 간접하다. 그리고 깜깜이 라는 표현 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표현은 사용해도 된다.   |
| <u>둘째</u> , '깜깜이' 는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깜깜이' 를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고 단지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감염 원인이나 경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만 쓰도록 해야한다.  |
| <u>셋째</u> , '깜깜이' 가 비하하는 표현이라면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등재 되어있더라도 좋지 않은 의미로 등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u>깜깜이</u> 라는 표현은 국어 사전에 비하하는 의미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u>따라서</u> 깜깜이 는 시각장애인 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닌 것 을 알 수 있다.  |
| <u>이런 3가지 이유로</u> 나는 '깜깜이' 라는 표현이 나쁜 것이 아니고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깜깜이 라는 표현은 감염경로불명 보다 간접하고 의미가 더 쉽게 와닿는 장점이 있고 또한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도 아니다. <u>따라서</u> 우리는 '깜깜이' 라는 표현을 시각장애인을 비하하고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 |

[그림 8]의 경우 학생 A가 처음에는 논제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다가 사후 글쓰기에서는 입장도 '찬성한다.'로 바뀌고 글 내용도 더욱 풍부해진

17) 사후 활동지에 제시된 펜 자국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주면서 남긴 흔적. 이하 활동지 동일.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생 A는 평소 조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데 매우 소극적인 편에 속하는 학생이었다. 또한 학생 A의 경우 사전 글쓰기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단순히 ‘깜깜이’가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보편적인 도덕 가치만을 제시하였는데 학생 A가 사전 글쓰기 활동을 진행할 때 저 정도의 글을 쓰고 활동 시간이 상당히 남았었다는 점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글을 길게 쓰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8]의 사후 글쓰기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학생 A는 글을 ‘내가 찬성하는 이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런 3가지 이유로 나는 ‘깜깜이’라는 표현이 나쁜 것이 아니고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을 사용하여 자신이 쓴 글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후 글쓰기에서는 학생 A처럼 글을 쓸 때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변화가 나타났다.

한편 두 번째 변화인 단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그 사회적 의미와 사용 맥락을 고려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B와 학생 C의 결과를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9]와 [그림 10]을 통해 각 학생들이 쓴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학생 B 슬로리딩 사전·사후 글쓰기 활동지

| 학생 B 사전 글쓰기 활동지  |
|--|
| <p>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 반대한다 )</p>   |
| <p>시각장애인들이 '깜깜이' 라는 표현에 시각장애를 비하하는 2번적 표현이라 생각하고 불쾌해 한다면 그것은</p>   |
| <p>음당 바뀌어야 하는 표현이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p>   |
| 학생 B 사후 글쓰기 활동지  |
| <p>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 반대한다. )</p>  |
| <p>그 이유는 '감염 경로 불명'이라는 대체 가능한 단어도 있고 '깜깜이'라는 시각장애인들이 듣기에 불편한 단어를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쓸다 쓰지 않는다는 걸 결정하는 건 그들에게 배의 없는 행동일 뿐이다 그리고 '깜깜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시각장애인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고 국어사전에 비하하는 표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다! 라는 <u>진</u> <u>배려 없는</u> <u>의견</u>이라고 생각한다. 이 단어에서 <u>뭔가</u> <u>완벽</u>를 할 수 있는 <u>진</u> 우리가 아닌 시각장애인들이라 생각된다. 실질적인 불쾌감을 느끼고 <u>있</u> <u>진</u></p> |
| <p>시각 장애인들인데 우리가 그 표현을 계속 사용하라는 의견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매우 배려 없고 짧기만 한 생각이다 하더라도 공적인 뉴스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다니 대중매체에서 사용된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문제 없는 단어라고 생각되기에 더욱 이런 표현을 <u>생각해야 한다</u>.</p>   |
| <p>애초에 문제와 갈등이 일어난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이미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중대본) 또한 이 표현이 문제가 있다는 시민들과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표현(깜깜이)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u>진</u>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타당하다 여겼기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다.</p>   |

[그림 10] 학생 C 슬로리딩 사전·사후 글쓰기 활동지

| 학생 C 사전 글쓰기 활동지  |
|--|
| <p>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 반대한다. )</p> <p>언어란 듣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언론 보도시 '깜깜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말 말고, 더 정확한 표현인 '감염경로 불명'으로 사용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다.</p>   |
| 학생 C 사후 글쓰기 활동지  |
| <p>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 반대한다. )</p> <p>언어라는 것은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각자 받아들여 나름대로 해석 된다. 예를 들어, 이번 주제인 '깜깜이'라는 단어가 있다. 우리같은 비장애인들은 '깜깜이'의 뜻이 '감염경로 불명 확진 환자'라고 알고있다. 만약, 시각장애인이 우리가 '깜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들었을 때,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이 우리를 비하하나?'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겠지만, 그중 하나를 고르자면 '올바른 뜻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로 쓰인다. 올바른 뜻을 사용하면 장점이 참 많다. <u>하나</u>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또 <u>하나</u> 서로에게 언어전달의 해석하는 의미가 달라 오해할 일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 오해를 살 수 있는 '깜깜이'라는 표현보다 좀 더 정확한 뜻을 가진 '감염경로 불명 확진 환자'라는 언어표현을 사용하자.</p> |

[그림 9]에 나타난 학생 B의 글쓰기 양상을 살펴보면 슬로리딩 전과 후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B의 경우 사전 글쓰기에서도 '깜깜이'라는 단어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이 담겨 있었고 사후 글쓰기에서도 ‘깜깜이’라는 단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구체화 되면서 사후 글쓰기에서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학생 B의 경우 어떤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어사전에 실린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해당 단어가 특정 집단에게 어떤 의미로 읽힐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중 매체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대중이 문제가 없는 단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언어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 C의 경우는 언어 자체의 사용 맥락에 대해 이야기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학생 C의 경우 슬로리딩 전에도 ‘언어란 듣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라는 내용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언어가 상황 맥락 안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 C의 입장은 사후 글쓰기에서 좀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완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자기 나름대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올바른 언어를 사용했을 시의 장점을 두 가지로 나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전 글쓰기에 비해 글의 내용이 좀 더 체계적이고 주장이 명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B와 학생 C의 활동지를 사례로 제시하였으나 이 외에도 사후 글쓰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뉴스나 대중 매체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언어를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쓴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때 학생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어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그 이유를 탐색해가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표현에 대해 신뢰하거나 문제

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과 공식적인 자리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언어를 해석하고 받아들일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언급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슬로리딩을 진행하며 주제어가 되는 단어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거나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을 겪으며 주제어나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거나 글을 쓸 때 독자 설득에 필요한 자신의 의견을 보충해나가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 내용 측면에서 살펴볼 세 번째 변화는 학생들이 역사사지를 고려하여 글을 쓰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생 D와 학생 E가 쓴 글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1] 학생 D 슬로리딩 사전·사후 글쓰기 활동지

| 학생 D 사전 글쓰기 활동지   |
|---|
| 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 반대 한다, )  |
| 감염이라는 단어는 시각장애를 비하하는 차별적 표현일수도 있다. 이렇하므로 감염이라는 단어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반대한다.  |
| 학생 D 사후 글쓰기 활동지   |
| 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 반대 한다, )  |
| 감염이라는 단어는 시각장애인들의 기분을 안 좋게 할 수가 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배려할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감염이라는 '어떤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로도 쓰일 수가 있다. <u>이러하게 나쁜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면</u>  |
| 감염이라는 단어는 안 쓰는 것이 좋다. 의미가 쉽게 사용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감염병으로 불명', '감염병으로 알수없는 확진자'라는 단어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선 단어를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염병으로 불명', '감염병으로 알수없는 확진자'라는 단어가 쓰기 불편 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의 기분을 배려하고 이해한 것이 좋다. 만약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해본다면, 무슨 기분 <u>일지 생각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u> ☆ |

[그림 12] 학생 E 슬로리딩 사전·사후 글쓰기 활동지

| 학생 E 사전 글쓰기 활동지   |  |
|---|--|
| 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 <del>비</del> 반대한다. ) |  |
| 왜냐하면 원글에서 말했듯이 '깜깜이' 라는 표현은 크나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                            |  |
| 기 어려운 환자 한테 쓰는 말로 자주 사용이 되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시각장애인을 비하하                         |  |
| 는 말이 된다는 의변도 있다. 그래서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  |
| 대해 나는 반대한다  |  |
|   |  |
| 학생 E 사후 글쓰기 활동지   |  |
| 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 반대한다. )              |  |
| 왜냐하면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환자에게 '깜깜이' 라는 말을 사용한다지만,                       |  |
| 알을 볼수없는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 일수가 있기때문이다. 내가 시각장애인의                         |  |
| 입장을 생각해 보면 <del>☆</del> 되게 기분 나쁠것같다. 그러나 감염원인, 경로 확인 해기가 어려운 환자에게         |  |
| '깜깜이' 라는 말보다는 <u>다른</u> 말을 사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상처를 받지 않잖아 있고,            |  |
|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이 표를 못본다고 해도 그사람도 우리나라 국민                          |  |
| 중의 한 사람이고 존중받을 권도 있다. <del>☆</del>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 될줄도                |  |
| 모르고 사용은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깜이'는 시각장애인분들을 비하하는 말,                              |  |
| 비하하는 말 같아선 <u>말</u> 같고 말해서 제의를 하자 <del>☆</del>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에서             |  |
| '깜깜이'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라도 개선을 했으니                                |  |
| 시각장애인분들에게 <del>☆</del> 사람들이 도움을 쉽게 생각했다. 따라서 '깜깜이' 라는                     |  |
| 말을 사용하지 말자.   |  |
|   |  |

[그림 11]과 [그림 12]는 둘 다 학생들이 슬로리딩 후 작성한 사후 글쓰기 활동지에서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한 점이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그림 11]과 [그림 12]를 작성한 학생 D와 학생 E의 경우 둘 다 처음에는 슬로리딩

활동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은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활동지에 나타난 변화를 좀 더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림 11]과 [그림 12]를 보면 사전 글쓰기에 서는 ‘깜깜이라는 단어는 시각 장애를 비하하는 차별적 표현일 수도 있다.’나 ‘그런데 알고 보니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등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글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제재 글과 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아보이니 자신의 생각 역시 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타인이 그렇다니 그렇더라는 식의 내용으로 글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사후 글쓰기에서는 둘 다 비교적 자신의 주장이 명확해지고 글의 길이도 좀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후 글쓰기의 내용을 보면 그 중심에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이었을 때를 고려하는 역지사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림 12]의 학생 D는 사후 글쓰기에서 ‘깜깜이라는 단어는 시각장애인들의 기분을 안 좋게 할 수가 있다.’에 이어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나 ‘감염경로불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라는 단어가 쓰기 불편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의 기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좋다. 만약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해보면 무슨 기분일지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생 E의 경우도 사후 글쓰기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글의 논리적인 짜임새는 상대적으로 아직 부족한 단계의 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글 내용을 보면 ‘내가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다.’나 ‘시각장애인이 앞을 못 본다고 해도 그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이고 존중받을 권리도 있다.’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학생이 ‘깜깜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해 생각할 때 단순히 타인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이러한 변화는 독서나 작문 교육 측면뿐 아니라 인성 교육이나 통합

교육의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변화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나. 글 내용’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사전 글쓰기에 비해 사후 글쓰기에서 글의 길이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슬로리딩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쓰기 실력이 없었다가 급작스럽게 생겼다가 보다는 슬로리딩 활동이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통한 표현이 풍부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기사문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제재 글과 글 내용의 특성 상 학생들이 사전 글쓰기에서는 대체로 ‘타인을 비하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안 된다.’라는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내용을 글로 쓰느라 상대적으로 무엇을 더 언급해야 하는지를 몰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슬로리딩 활동을 통해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학생들은 단어의 의미, 해당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 해당 단어를 보고 들을 사람들의 상황 등의 맥락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고 사전 글쓰기 활동 후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사후 글쓰기에서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전반적으로 내용이 풍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슬로리딩 독서 활동은 학생들에게 글을 읽으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쓰기 활동에서 내용적인 측면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글 구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처럼 앞의 내용을 통해 슬로리딩이 학생들의 표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현력의 측면에서는 단순히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적인 부분 역시 중요하

다. 문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담화표지를 어떻게 사용하며 맞춤법을 얼마나 준수하느냐에 따라 글의 짜임새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 내용에 이어 학생들이 쓴 글을 통해 글의 형식적인 측면, 즉 글 구조 면에서는 학생들의 글에서 어떤 양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학생 F 슬로리딩 사전·사후 글쓰기 활동지

| 학생 F 사전 글쓰기 활동지  |  |
|--|--|
| 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반대) 합니다 )  |  |
| 깜깜이 라는 표현은 시각 장애인 이가 상상 어리단언 다 시각 장애인 들이 깜깜이 라는 말 이 뉴스에 나올 때 아다 시각 장애인 들은 뉴스를 읽 어 하게 될 것 입니다 시각 장애인 들이 뉴스를 읽 볼 때 우고 로 나가 얼마나 생각 할 리 였는지  |  |
| 학생 F 사후 글쓰기 활동지  |  |
| 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반대) )  |  |
| 시각 장애인 이며 드 토/티워 김/보든대/김김이리고/말해 서 시<br>각 장애인 이 불 편 하리 다고 는 김리고/해 각 됩니까?/시 기 장애인<br>인 들이/깜깜이 리는/말 을 쓰는 때 에 다 창 러 를/만 습 니다 그 래 서<br>김김이 리 는/말 을 쓰는 면 이 됩 는 시 유 영 니다 그 리고 포 섭 책 력 이 습 스<br>에 서 김 김 이 리고 말 리 김 김 라 기 리 리 (만 해) 김 김 이 리고 이 리<br>시 각 장애인 들 은 김 김 이 리 는 단 어 가 실 고 확 리 리 는 김 김 이 리<br>놀 리 한 기/때 운 어/김 김 이 리 는 다 어 습 없 어 겨 단/합 니 다 그 리고 포<br>김 김 이 리 는/말 을 니 만 단 어 입 니 다 시 각 장애인 과 확 리 리 리 이 하<br>리 는/말 이 태 수 이 습 니 다 |  |

[그림 14] 학생 G 슬로리딩 사전·사후 글쓰기 활동지

| 학생 G 사전 글쓰기 활동지   |
|---|
| 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 찬성하지 않는다. )  |
| 위 내용과 같이 '깜깜이'라는 단어를 듣게 된다면 '어둠' 이라는 것이 생각이난다. 그래서 시각장애인<br>들이 불편할 것이 뻔하다. 우리도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을 면도 볼된다면 싫어할 것이다. 따라서<br>시각장애인들도 싫어할 것이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깜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br>'깜깜이'라는 단어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의 기분에 좋지 않은 인식을 기릴것이다. 그러므로<br>나는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
| 학생 G 사후 글쓰기 활동지   |
| 나는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깜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 반대합니다. )   |
| <b>사전</b> 이유는 '깜깜이'라는 단어는 '코로나'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를 찾기 어려운 사람' 이라고 하는데<br>'깜깜이'를 듣게 되면 가장 생각이 나는 것은 '어둠'을 나타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br>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불편하기 때문에<br>'깜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기분 나쁠 것 입니다. 반대로, 눈이 불편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그 단어<br>를 들었을 때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눈도 불편해서 안좋은데<br>'깜깜이' 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매우 기분이 나쁘고, 속상할 것 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장애인분들의<br>마음을 더 공감하고 도덕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서로 기분이 좋을 것 입니다. |
| <b>사후</b> '깜깜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국어사전에<br>비하하는 뜻이 없지만 국어사전에 별로 좋지않다는 뜻을 추가하거나 국어전에서 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 <b>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없을 것 입니다.</b> 그런데도 찬성을 하고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br>않고 국어사전에 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나온 제 생각처럼 저는 '깜깜이'라는 표현을<br>쓰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  |

[그림 13]과 [그림 14]는 글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 사례에 해당한다. 슬로리딩 후 진행한 사후 글쓰기에서 학생들은 대체로 글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사전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맞춤법의 오류나 문단 구분을 하지 않는 것 등의 특성이 대체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림 13]의 경우 사전 글쓰기와 사후 글쓰기를 비교하였을 때 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어느 정도 발전된 부분이 있으나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띄어쓰기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맞춤법을 틀리는 현상이 사후 글쓰기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한편 그렇다고 해서 글의 구조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후 글쓰기에서 문단 구분이 사전 글쓰기에 비해 비교적 뚜렷해지는 변화는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소수에 그쳤다. 대신 [그림 14]처럼 그나마 비교적 여러 학생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변화로는 글을 쓸 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담화 표지의 사용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스스로 담화 표지 사용을 터득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쓰는 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담화표지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난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글을 길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담화표지를 쓸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부여한 것은 슬로리딩이 글 구조 면에서 지니는 긍정적인 효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글 내용 측면에 비해서 글 구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띄어쓰기나 맞춤법, 문단 구분 등 글의 형식적인 측면은 한두 번 글을 읽거나 의견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나아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 글을 쓸 기회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담화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더 많이 부여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슬로리딩은 글의 형식적인, 구조적인 측면의 교육에 대해 한 가지 제언을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글쓰기와 관련하여 따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문단 구분, 글의 짜임새 등 글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은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슬로리딩의 특성 상 내용 탐구와 더불어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도 함께 병행한다면 학생들의 쓰기 역량 역시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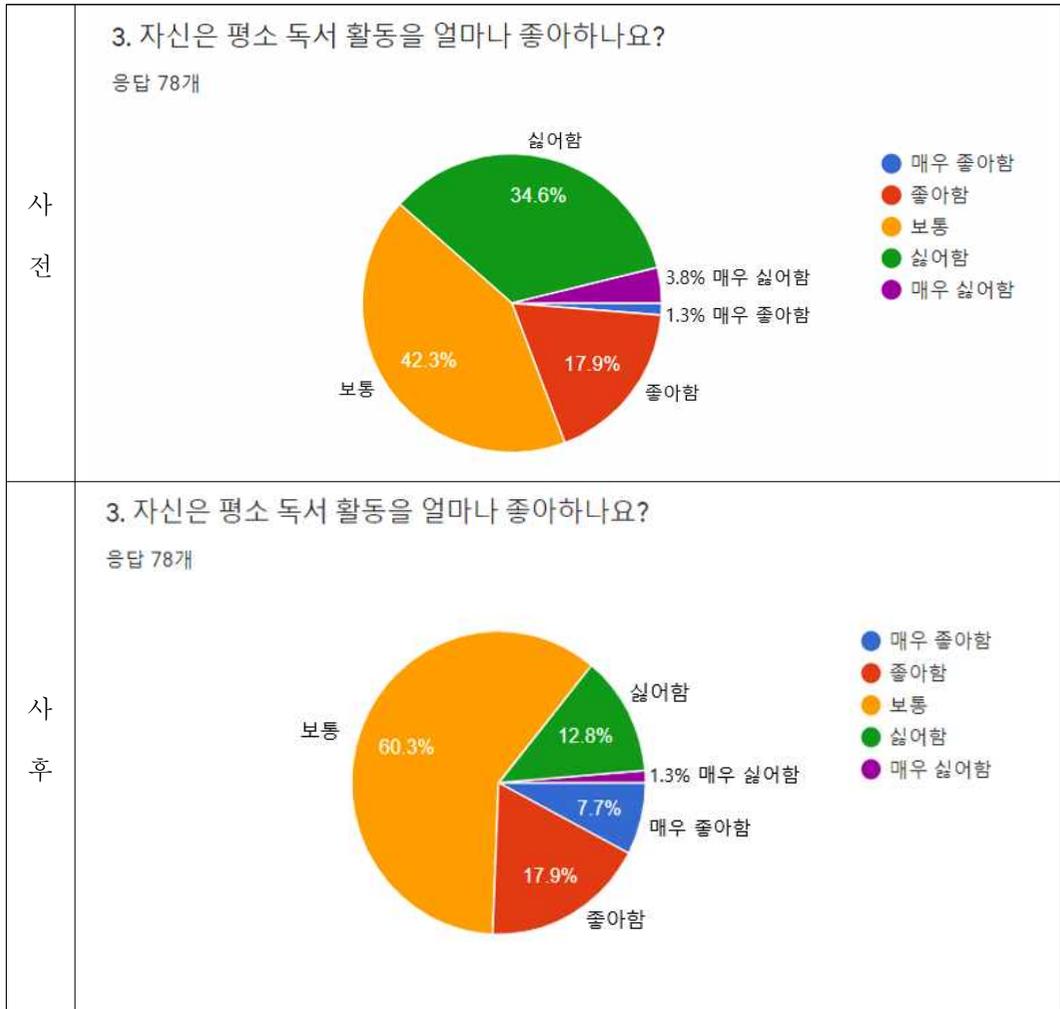
## 2. 독서 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책을 멀리하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본 연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때 독서 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거리를 제시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독서 태도 요인이 많아질수록 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독서의 실현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로리딩 활동 후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슬로리딩이 학생들의 독서 선호도, 독서 동기, 독서 효능감, 독서 몰입 등 전반적인 독서 태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독서 선호도

독서 선호도를 독서에 대한 호불호나 그 경향성이라고 하였을 때 보편적으로는 이를 ‘독서 태도’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독서 태도의 범위를 보다 넓게 잡고자 한다는 점에서 독서에 대한 호불호나 경향성은 ‘독서 선호도’라는 명칭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편 ‘자신은 평소 독서 활동을 얼마나 좋아하나요?’라는 물음으로 실시한 사전 사후 설문 조사의 결과를 각각 제시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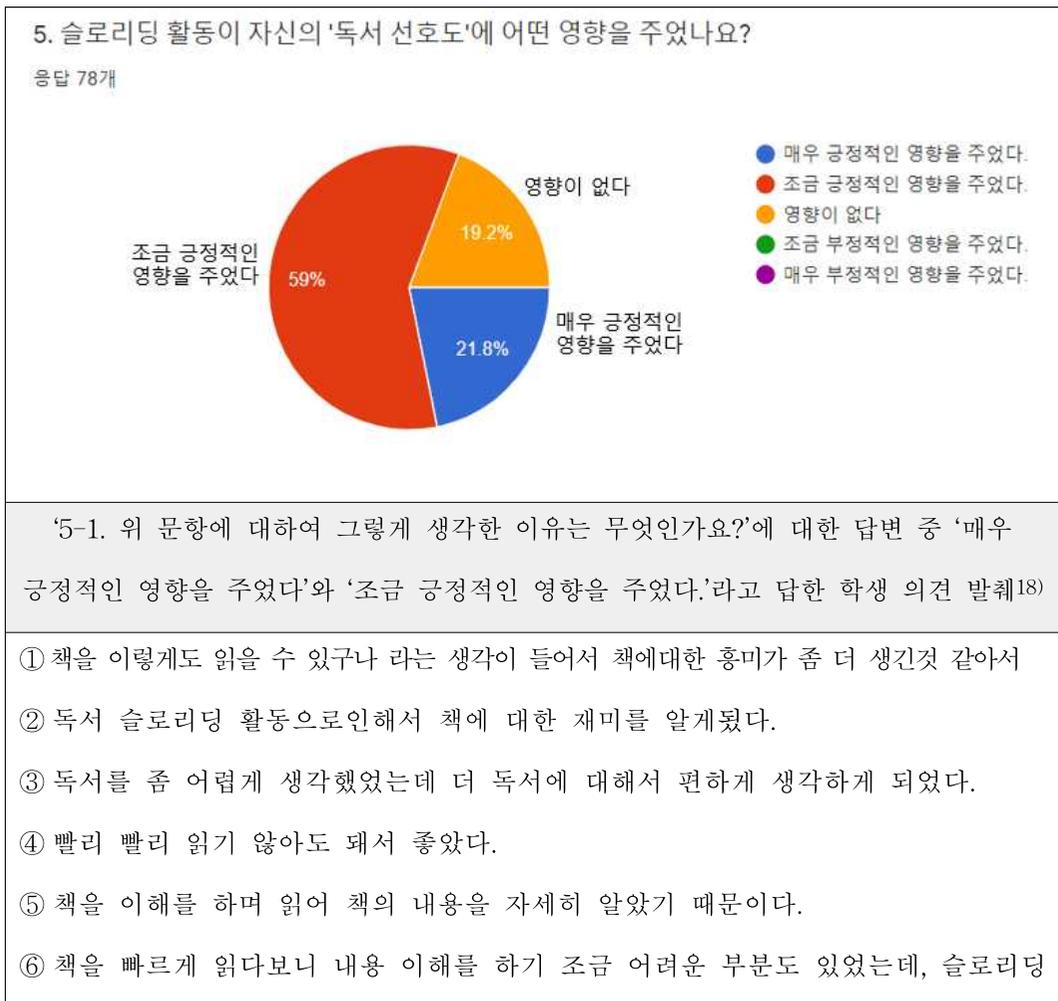
[표 14] 독서 선호도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 결과



[표 14]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사후 설문에서 독서에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 학생들의 비율은 감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지닌 학생들의 비율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싫어함’과 ‘매우 싫어함’을 합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던 학생들은 38.4%에서 14.1%로 약 24%가 감소하고, ‘좋아함’과 ‘매우 좋아함’을 합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던 학생들은 19.2%에서 25.6%로 약 6%가 증가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비록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 학생들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긍정적인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보통’이라고 답한 중간층의 비중도 42.3%에

서 60.3%로 약 18%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슬로리딩 활동이 적어도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데는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2018 <독자개발연구>에 따르면 상위 애독자 층은 대학 졸업 후에도 꾸준한 독서량을 유지한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좋아함’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미래의 애독자를 양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에 해당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독서 선호도에 대한 추가 설문 결과



은 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 ⑦ 슬로리딩을 통해서 글의 내용이 더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 ⑧ 책을 천천히 읽어서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책이 재밌다는 것을 알았다.
- ⑨ 슬로리딩을 하면서 나의 상상력을 키우고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스쳐가는 글씨를 읽은 게 아니라 마치 영화 1편을 본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난 슬로리딩을 마치면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고 그 책 내용과 책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잘 잊지 않게 되었다. 난 이런 느낌이 좋아서 이제 독서가 좋아졌다.
- ⑩ 슬로리딩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면서 책을 선호하게 되었다.

추가 설문은 학생들의 독서 태도 변화에 슬로리딩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중 5번 문항과 5-1문항은 독서 선호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표 15]를 보면 학생들은 슬로리딩 활동이 대체로 자신의 독서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1문항에서는 학생들이 ‘책’과 ‘글’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한 것은 아니나 슬로리딩 활동과 독서 선호도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만하다. 학생들이 제출한 78개의 답변 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답한 학생의 답변 10개를 뽑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답변 ①, ②를 보면 학생들이 ‘슬로리딩’이라는 독서법에 흥미를 느꼈고 이것이 독서 선호도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답변에서는 ‘슬로리딩’ 활동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답변 ③과 답변 ④의 경우 ‘독서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게 되었다.’와 ‘빨리 빨리 읽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번에 책을 다 읽지 않고 부분

---

18) 학생들이 답변한 내용은 오타자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함. 이하 제시한 설문 결과도 동일.

부분 나눠 읽는 슬로리딩 활동이 학생들의 읽기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주는 데 기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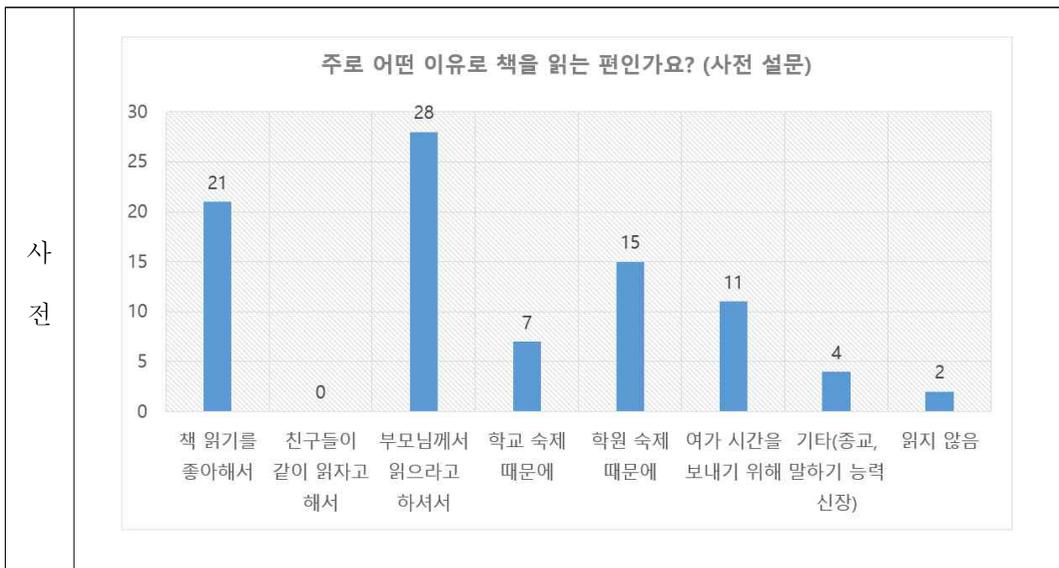
한편 답변 ⑤, ⑥, ⑦, ⑧을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이해와 기억에 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책을 이해를 하며 읽어 책의 내용을 자세히 알았기 때문이다.’, ‘슬로리딩을 통해서 글의 내용이 더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읽은 글의 내용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슬로리딩의 특성이 학생들이 글 내용을 좀 더 오래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그것이 선호도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책을 천천히 읽어서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책이 재밌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답한 학생 답변 ⑧은 이러한 내용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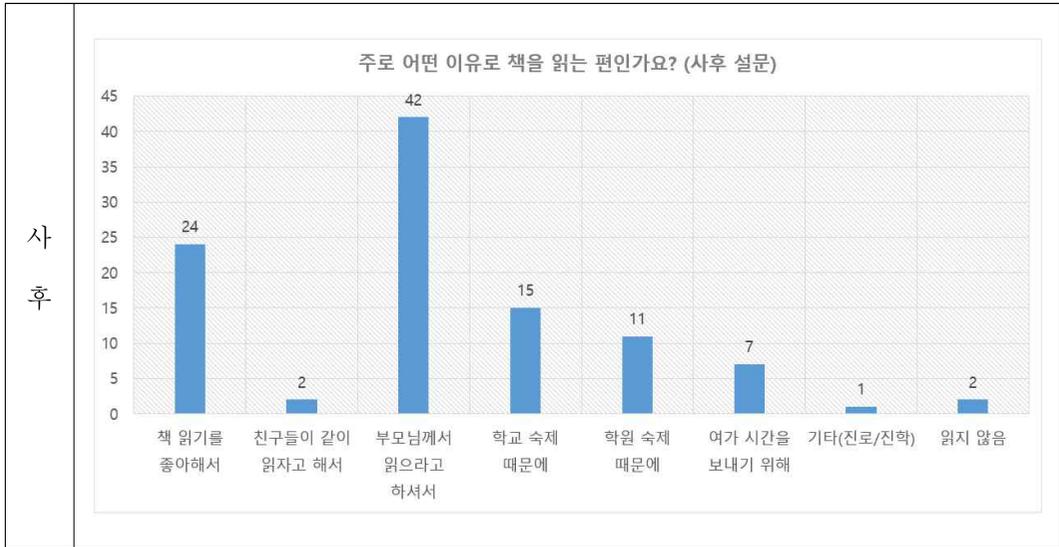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슬로리딩 활동에서 경험한 ‘상상력의 증가, 성취감, 상호텍스트적 읽기’ 등이 독서 선호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답변 ⑨의 경우 ‘단순히 스쳐가는 글씨를 읽은 것이 아니라 마치 영화 1편을 본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학생이 슬로리딩 활동을 진행하며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글에 집중하고 또 몰입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몰입이 학생으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제재 글에 담긴 교훈적 의미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알 수 있다. 그리고 답변 ⑩은 자료 찾으며 읽기 활동 중에 자신이 여러 책을 찾아 읽었던 경험 즉, 상호텍스트적 읽기 활동이 학생으로 하여금 여러 책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며, 자신이 궁금했던 내용을 책을 통해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지적인 부분을 포함한 학생의 내적 성장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독서 경험을 부여하고 독서 선호도의 증가를 이끌어 내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독서 동기

독서 동기관 독서 행위를 촉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시키는 독자의 다면적인 심리 구조를 의미한다. “정의적 요인 중에서도 독서 동기는 독서 활동을 유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진학 후 학생들의 독서 동기가 급격히 하락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독서 동기·흥미·태도를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이순영, 2015:62-63).” 한편 본 연구 역시 슬로리딩을 통해 중학교 학습자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나아가 사람들이 책을 멀리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독서 활동과 좀 더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 독서 동기를 살펴보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슬로리딩 전과 후 학습자들이 주로 어떤 독서 동기를 가지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독서 동기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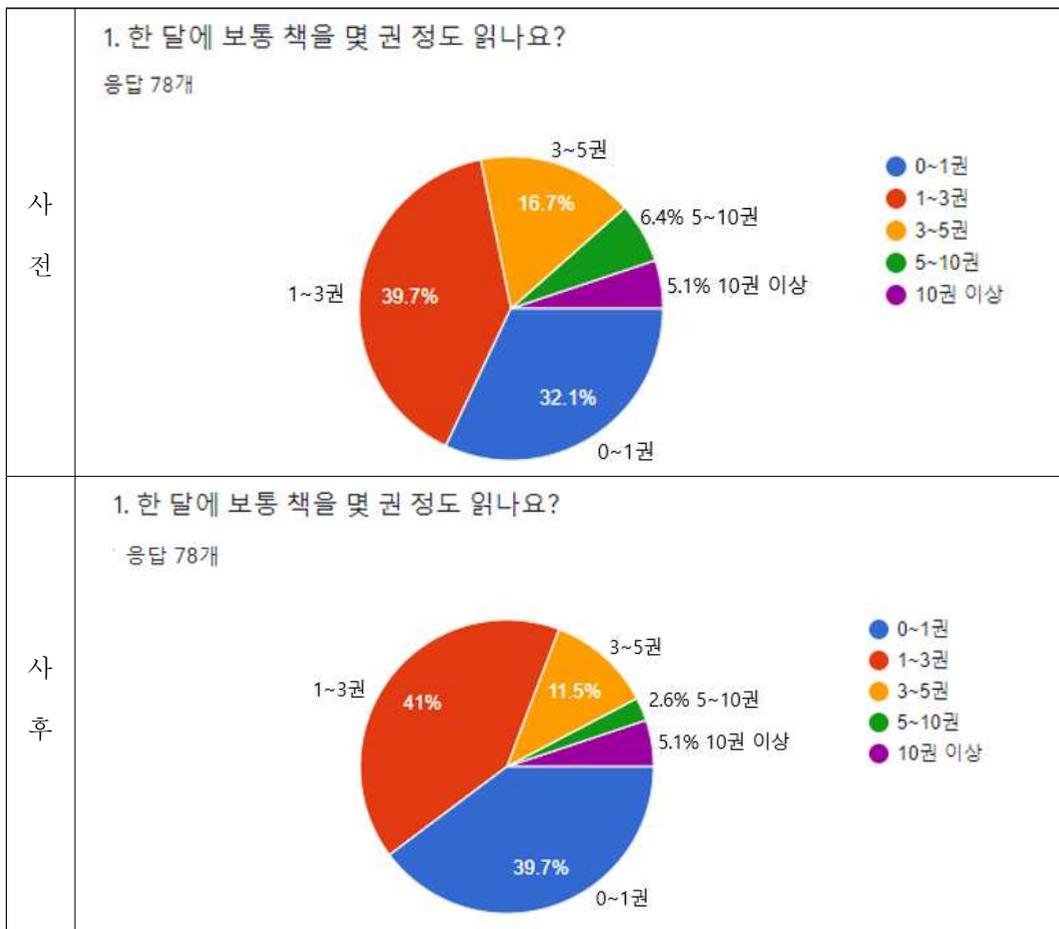


‘주로 어떤 이유로 책을 읽는 편인가요?’로 진행한 동서 동기에 대한 설문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독서를 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본 선택지는 ‘책 읽기를 좋아해서, 친구들이 같이 읽자고 해서, 부모님께서 읽으라고 하셔서, 학교 숙제 때문에, 학원 숙제 때문에, 기타(서술형)’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결과 ‘기타’에 답변한 내용 중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서, 자기 전에 잠깐’ 등은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로 수합하였고, ‘안 읽음, 읽지 않음’ 등의 답변은 ‘읽지 않음’으로 수합하여 나타내었다.

한편 이러한 독서 동기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는 부모님께서 읽으라고 해서 읽는다는 답변이 28명에서 42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외에는 ‘학교 숙제 때문에’ 읽는다는 답변이 7명에서 15명으로 그 다음 많은 변화를 보였다. 이는 둘 다 독자 외적인 요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에게 여전히 외적 독서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밖에도 ‘친구들이 같이 읽자고 해서’ 읽는다는 답변은 0명에서 2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책 읽기를 좋아해서’,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는 각각 3명이 증가하고 4명이 감소하여 역시 다소 미미한 변화를 보였다.

“읽기 동기는 읽기라는 행동을 촉발하고 지속하도록 하며 유지하도록 하는 독자의 심리적 동인을 의미한다(최숙기, 2010:350).” 그렇다면 위 설문 결과에서 책 읽기를 좋아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자발적 독서 동기는 그리 큰 변화가 없었으나, 학습자들에게 외적인 요소에서 책을 읽게 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면 이는 독서량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러나 다소 안타깝게도 외적 독서 동기 요인이 늘어난 것과 비교했을 때 독서량은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독서량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월 평균 독서량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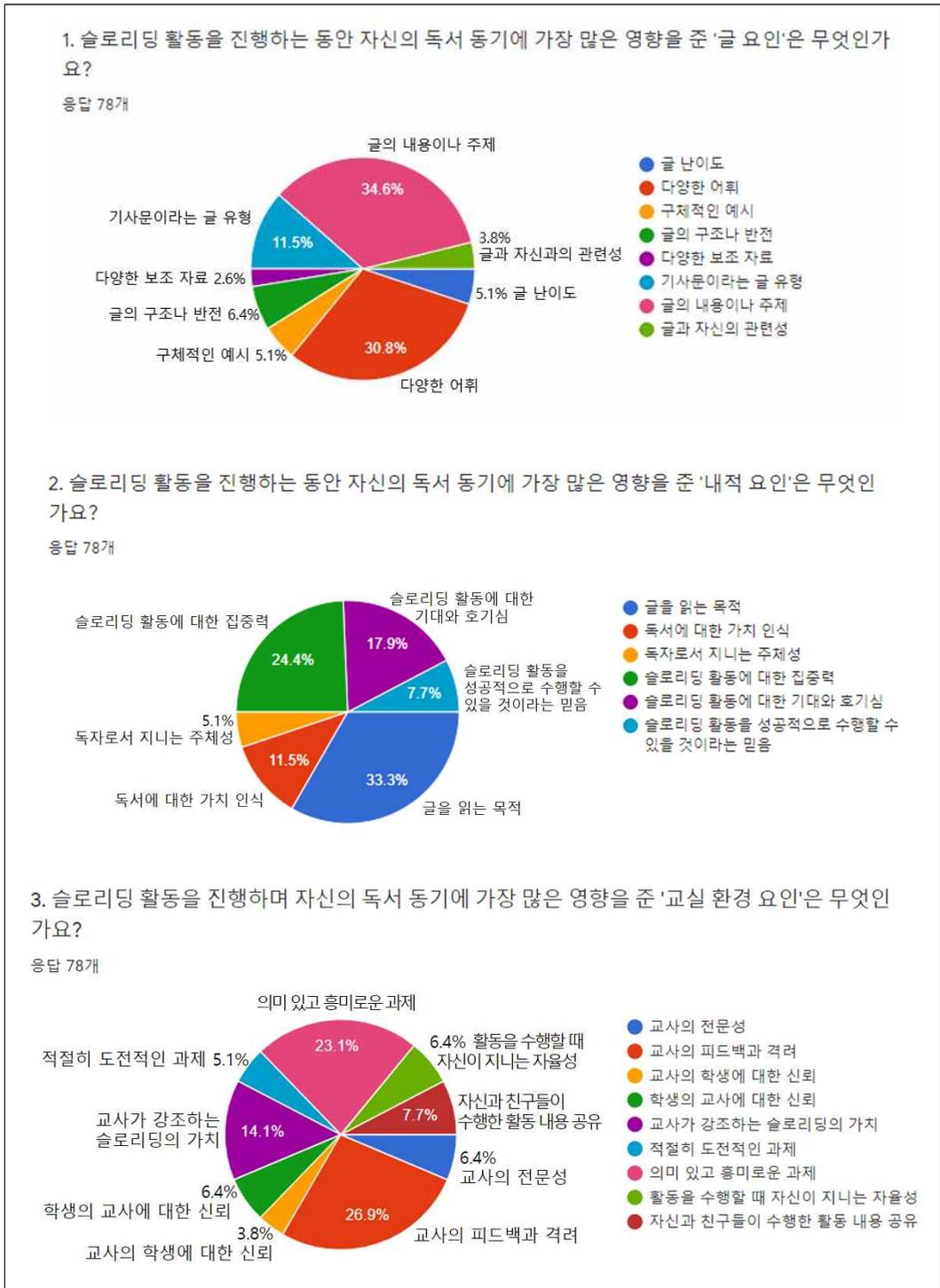


[표 18] 월 평균 독서량 변화 추이 (단위: 명)

|    | 0~1권 | 1~3권 | 3~5권 | 5~10권 | 10권 이상 |
|----|------|------|------|-------|--------|
| 사전 | 25   | 31   | 13   | 5     | 4      |
| 사후 | 31   | 32   | 9    | 2     | 4      |
| 증감 | +6   | +1   | -4   | -3    |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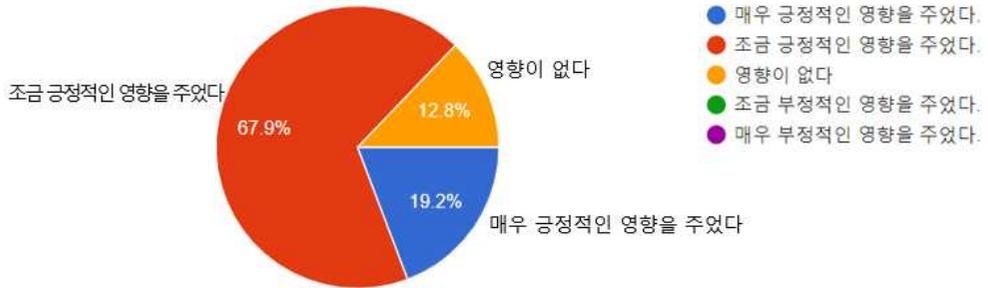
사전, 사후 설문에서 10권 이상 읽는 다독자의 비중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0~1권으로 책을 거의 읽지 않는 학생들은 약 7%로 6명이 증가하였고 3권에서 10권 사이로 비교적 많은 책을 읽는 학생들은 7명 정도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독서량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안타까운 일이나, 슬로리딩 역시 다독보다는 천천히 읽더라도 정독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슬로리딩 자체는 학생들의 독서 동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한편 이순영(2015)은 독서 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텍스트 요인, 독자 내적 요인, 교사와 교실 환경 요인, 가족과 가정환경 요인’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중 슬로리딩 활동과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텍스트 요인, 독자 내적 요인, 교사와 교실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추가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실시한 설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독서 동기에 대한 추가 설문 결과



4. 슬로리딩 활동이 자신의 '독서 동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응답 78개



'4-1. 위 문항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답변 중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답한 학생 의견 발췌

- ① 독서 시간에 책을 많이 읽어서 이다
- ② 슬로리딩을 하고난뒤에 읽는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 ③ 전에는 독서라는 게 그냥 어렵고 지루했는데 슬로리딩을 배우고 나서 독서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책을 읽으면 난 책 속에 빠져들고 내가 그 책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한 듯 한 느낌이 들었다.
- ④ 슬로리딩을 하면서 읽고있는 책의 다음내용에 호기심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책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다른책들을 읽을때도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 ⑤ 무엇보다도 내용이 너무 흥미로웠고 슬로리딩이란 활동을 하니까 글의 내용이 더욱 기억에 잘 남고 재미있게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⑥ 긴 책을 한 번에 읽는 것보다 천천히 읽는게 글을 이해 하는데 쉬웠다.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독서를 하는 데 도움이 됐다
- ⑦ 책을 천천히 읽으니까 두께가 있는 책을 읽을 때 부담감이 없어서 좋았다.

- ⑧ 슬로리딩을 하면 좀더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평소엔 잘 이해가 안되는 어려운 내용을 해석할수있게 어려운 주제의 내용을 좀더 고른다
- ⑨ 느리게 책을 읽는 것에 흥미가 있었고 천천히 읽는다면 이해하는게 더 빠르고 꼼꼼히 읽을 있을것 같아서
- ⑩ 책을 잘 안읽었는데 독서 시간에 책을 천천히 읽어서 좋았다
- ⑪ 글을읽으면서내생각이나느낌같은걸느꼈다

독서량이 조금씩 감소한 것과는 별개로 슬로리딩 활동과 독서 동기의 영향 관계를 묻는 추가 설문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문항(4-1)을 통해서도 독서량의 감소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학생 답변 ①처럼 독서 시간에 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게 한 것이 독서 동기의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슬로리딩이 독서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답한 학생들의 대다수는 답변 ②처럼 ‘슬로리딩’이라는 새로운 독서 방법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답변 ③부터 답변 ⑩까지는 그러한 답변의 내용들을 모은 것인데 답변 ③의 경우 ‘슬로리딩’을 통해 이전에는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독서가 신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답변 ③은 수업 시간에 배운 방법을 적용하여 책을 읽으면 좀 더 책의 내용에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몰입하기가 쉽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다는 답변을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슬로리딩이 독서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꾸고 나아가 학습자에게 독서가 상상력을 기르고 자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답변 ④는 슬로리딩을 하면서 유발되었던 호기심이 다른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까지 이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읽는 글의 부분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 것이

다음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호기심을 학습자가 스스로 인식하면서 독서에 대한 흥미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둘 다 슬로리딩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천천히 읽기’가 주는 여유로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어떤 내용이 잘 이해되고 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인지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동일한 것이 부담을 주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동기를 유발하고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답변 ⑤, ⑥, ⑨, ⑩은 이와 관련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슬로리딩이라는 독서법을 학생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독서 동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답변 ⑥과 답변 ⑨의 경우 ‘긴 책을 한 번에 읽지 않고 나누어 읽기’, ‘천천히 읽기’, ‘단어 찾으며 읽기’ 등 슬로리딩 활동을 통해 책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독서 전략을 습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답변 ⑦과 답변 ⑧은 사후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독서량 감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답변 ⑦의 경우 ‘천천히 읽어서 두께가 있는 책을 읽을 때 좋았다.’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답변 ⑧은 ‘어려운 내용을 해석할 수 있게 어려운 주제의 내용을 좀 더 고른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슬로리딩을 위해 다룬 제재 글의 경우 둘 다 기사문이었다는 점에서 글 길이 자체는 다소 짧은 편에 속하였다. 따라서 답변 ⑦에서 이야기한 ‘두께가 있는 책’이란 학생이 스스로 선택해서 읽은 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답변 ⑧에서 ‘어려운 내용을 해석할 수 있게’라는 부분 역시 학생이 자신이 더 알고 싶거나 모르는 내용을 만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다른 책을 찾아 읽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이 다소 느리더라도 좀 더 어려운 내용의 책을 읽어보고 두께가 있는 책에 도전해보는 과정이 월 평균 독서량의 감소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끝으로 답변 ⑪은 슬로리딩과 독서 동기의 긍정적인 영향 관계에 대하여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답변 ⑪은 학생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학생이 슬로리딩 독서 활동을 하면서 활자를 기계적으로 해독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책과 글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읽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학생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읽기 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특히 답변 ⑪을 제시한 학생은 독서는 물론이고 평소 학습을 어려워 하던 학생이었다는 점에서 슬로리딩이 독서를 멀리하던 학생들에게도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슬로리딩 활동이 대체로 자신의 독서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추가적인 서술형 문항을 통해 슬로리딩에서 적용한 천천히 읽기나 자료 찾으며 읽기, 다양한 활동과의 연계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는 추론하였으나,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표 18]에 제시된 1번~3번 문항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1번~3번 문항에 제시된 것처럼 슬로리딩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독서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글 요인, 독자 내적 요인, 교실 환경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추후 슬로리딩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1번 문항은 슬로리딩 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의 독서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글 요인’에 대하여 묻는 문항이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어휘’, ‘글 내용과 주제’ 항목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이는 슬로리딩 활동을 위한 제재 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글 내용과 주제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학습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문을 제재 글로 택하였는데 언어 감수성이나 환경 문제를 코로나19와 연계하여 볼 수 있다는 점이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다음 두 번째는 학생들이 궁금해 할 만한 다양한 어휘들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슬로리딩 활동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글에 자신의 생각을 머무르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글에 사용된 단어의 뜻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슬로리딩 활동을 진행할 때 글을 천천히 읽는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이 아는 것 같은 단어도 사전에서 뜻을 찾아 읽으면 더 정확하게 문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이는 자료 찾으며 읽기와 더불어 학습자들이 모르는 정보에 직면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은 활동을 진행하며 다양한 어휘의 뜻을 찾는 활동을 상당히 흥미로워 하였다. 즉, 이는 사전 찾기 활동이 주는 능동적인 배움과 그 즐거움이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슬로리딩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독서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내적 요인’으로는 ‘글을 읽는 목적’, ‘슬로리딩 활동에 대한 집중력’, ‘슬로리딩 활동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하였다. 이 세 항목은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을 읽는 목적이 있어야 슬로리딩 활동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고 그 집중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슬로리딩 활동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로리딩 활동을 진행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슬로리딩 독서법이 필요한 이유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 다양하고 흥미로운 활동 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슬로리딩 활동을 진행하며 자신의 독서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교실 환경 요인’으로는 ‘교사의 피드백과 격려’, ‘의미 있고 흥미로운 과제’가 가장 많았고 ‘교사가 강조하는 슬로리딩의 가치’와 ‘자신과 친구들이 수행한 활동 내용 공유’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슬로리딩 활동 자체가 글의 길이를 떠나서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먼저 교사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헤매거나 지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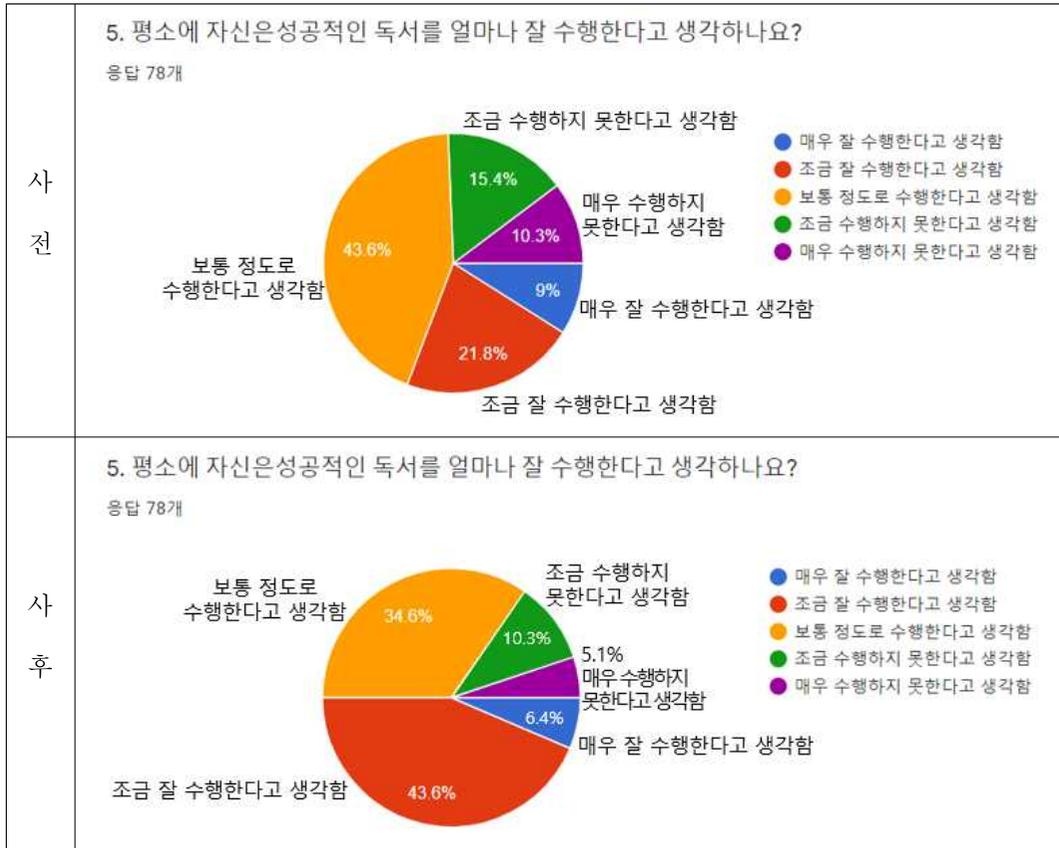
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피드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교사가 슬로리딩의 필요성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교사가 강조하는 슬로리딩의 가치를 학습자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활동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활동이 아니라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고 학습자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 그리고 그러한 활동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봤을 때 슬로리딩이 독서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슬로리딩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피드백이 중요하며, 슬로리딩 자체는 학생 활동 비중이 크다고 할지라도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슬로리딩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과 교사-학생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독서 효능감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능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자신이 어떤 대상에 흥미와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 낮다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소 머뭇거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독서 효능감은 ‘자신의 독서 능력과 성공적인 독서 행위에 대한 기대와 믿음 (이순영, 2015)’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독서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독서 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슬로리딩을 통한 독서 활성화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슬로리딩 활동 전과 후 독서 효능감에 대해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래프 형태로 제시하면 아래 [표 2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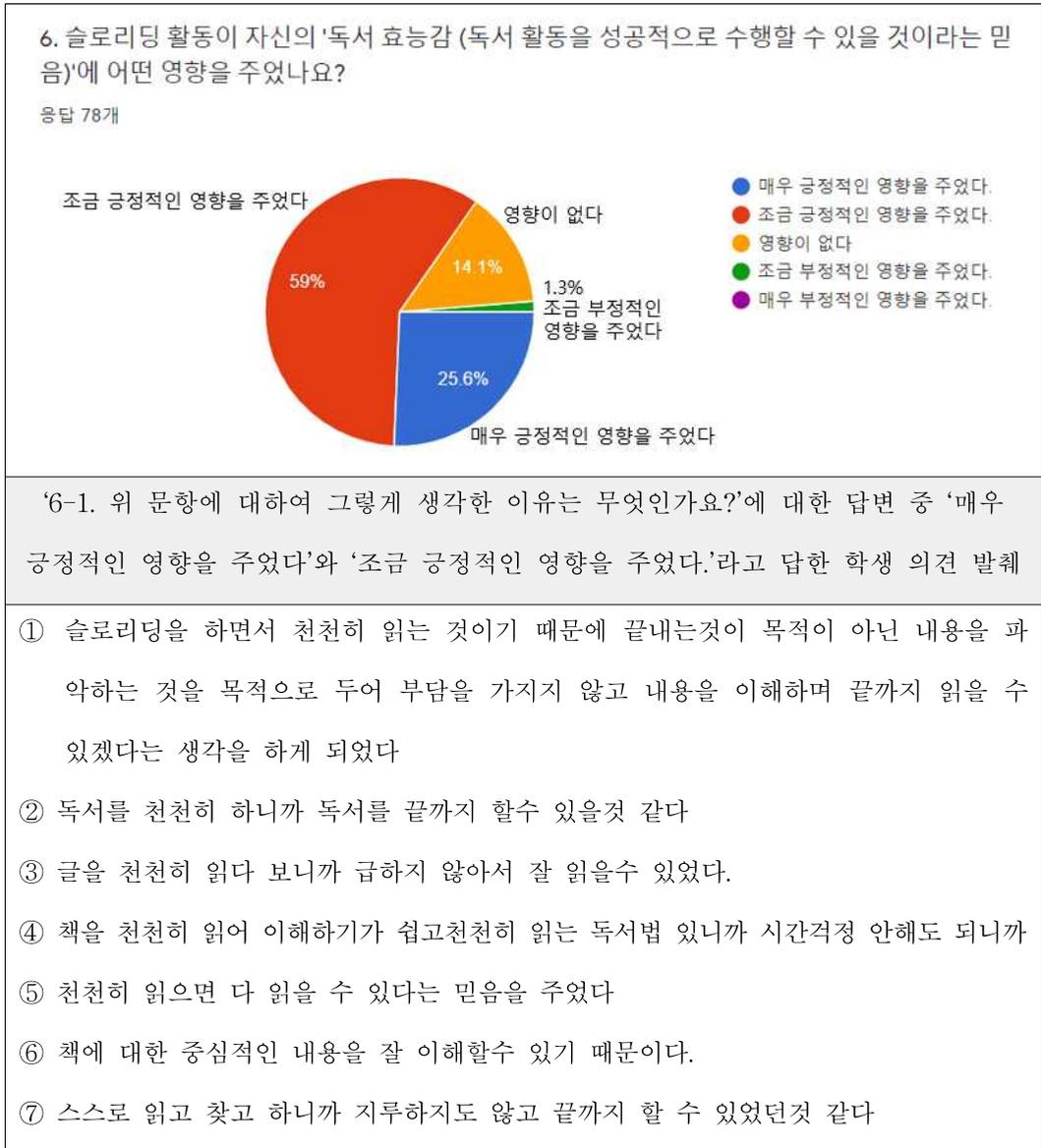
[표 20] 독서 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 결과



위 그래프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긍정적인 효능감을 지닌 학생들이 30.8%에서 50%로 약 20%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매우 잘 수행한다고 답한 학생들이 9%(7명)에서 6.4%(5명)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조금 잘 수행한다고 답한 학생들 비중이 21.8%에서 43.6%로 20%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는 독서 선호도 향상과 더불어 학생들이 자신의 독서 수행 능력에 점차 자신감을 갖고 독서 활동을 친근하게 느끼기 시작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슬로리딩 활동의

어떤 면이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효능감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얻고자 실시하였던 추가 설문 내용을 [표 21]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독서 효능감에 대한 추가 설문 결과



- ⑧ 원래는 문제에 있는 답을 찾기위해 속독을 해서 찾기 어렵고 시간이 더 걸렸었는데  
슬로리딩은 속독을 한번 하는 것 보다 정확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 ⑨ 대충 이해만 하는 것보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책의 내용을 슬로리딩으로 정확  
이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책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
- ⑩ 이제 책을 읽다가 관두는 일이 없어져서

독서 효능감과 슬로리딩의 영향 관계를 묻는 추가 설문 역시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1명의 학생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모든 독서를 슬로리딩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학생과 더불어 약 14%(11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슬로리딩이 자신의 독서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답변을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슬로리딩이 어느 정도 독서 효능감 향상에도 기여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답변을 보면 전반적으로 천천히 읽으면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끝까지 읽는 ‘완독’을 목표로 한다면 속독을 해도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왜 천천히 읽었을 때 ‘완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 이는 학생 답변 ①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답변 ①의 경우 슬로리딩을 하면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내용 파악을 목적으로’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학생들의 표현을 빌려 ‘책 읽기를 끝내는’, 즉 책을 ‘다 읽는 것’을 목적으로 둘 경우 그 양과 끝내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독서에 대한 자신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 ⑧ 역시 속독을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슬로리딩을 하면 속독을 한번 하는 것보다 정확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독서에 대

한 효능감을 기르는 데 내용 이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래 [표 22]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독서 수행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 조사 결과인데 이 설문 결과 역시 학생들이 성공적인 독서 수행을 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이해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성공적인 독서 수행 기준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 결과

|                |   |
|----------------|---|
| <p>사<br/>전</p> | <p>4. 성공적인 독서 수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br/>응답 78개</p> <p>책도 끝까지 읽으면서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 60.3%</p> <p>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28.2%</p> <p>책을 끝까지 읽는 것 10.3%</p> <p>책의 주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을 끝까지 읽는 것</li> <li>●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li> <li>● 책도 끝까지 읽으면서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li> <li>● 책의 주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li> </ul>  |
| <p>사<br/>후</p> | <p>4. 성공적인 독서 수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br/>응답 78개</p> <p>책도 끝까지 읽으면서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 55.1%</p> <p>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37.2%</p> <p>작가가 전하려는 의미를 파악하여 내 생각과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알아내는 것 6.4%</p> <p>작가가 전하려는 의미를 파악하여 내 생각과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알아내는 것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을 끝까지 읽는 것</li> <li>●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li> <li>● 책도 끝까지 읽으면서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li> <li>● 작가가 전하려는 의미를 파악하여 내 생각과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알아내는 것</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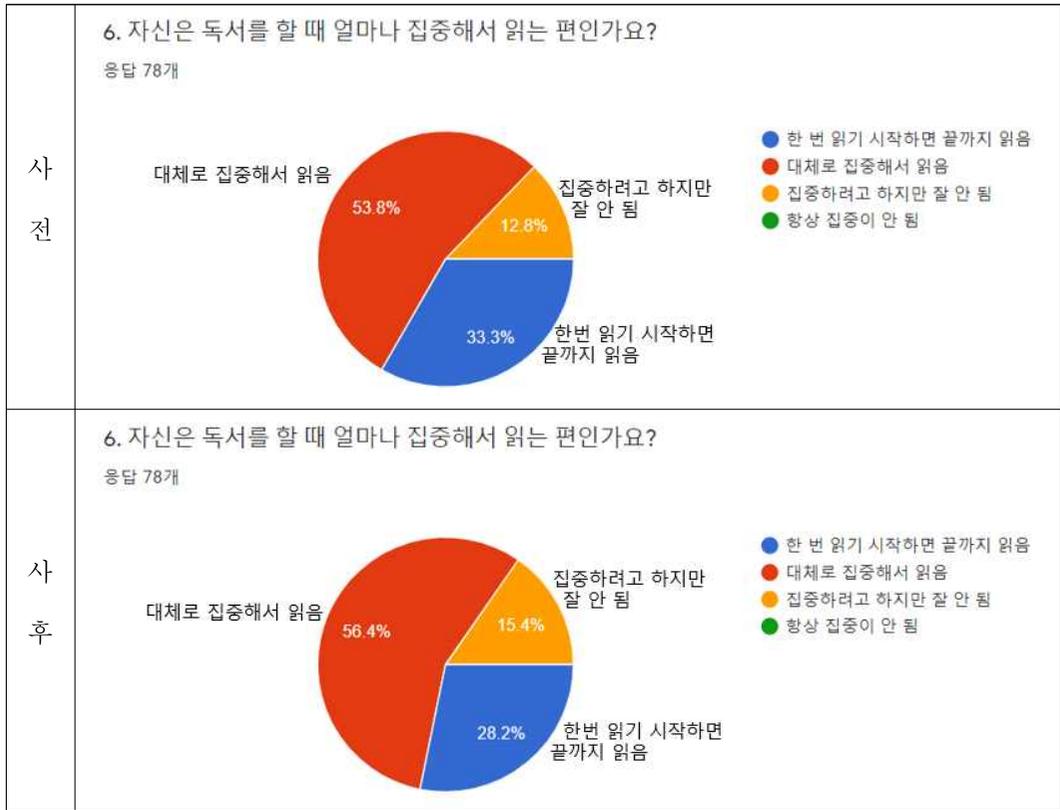
한편, 독서 효능감에 대한 이러한 설문 결과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읽기 교육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다. 사실 책이라는 것은 독자가 언제든지 원할 때 읽고 원하는 만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의 독서 교육에서는 시험이나 학습이라는 목적 아래, 시간 부족과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효율적인 독서,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는 독서를 너무 강조하지는 않았는가 한다.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다독과 속독에서 벗어난 독서 활동도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국어 교과 시간에서는 제재 글에 대한 내용 이해 학습을 진행할 때 학습자가 제재 글을 충분히 생각하며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독서 효능감 즉, 자신의 성공적인 독서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글을 읽을 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며 글을 읽고 내용 이해력을 기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라. 독서 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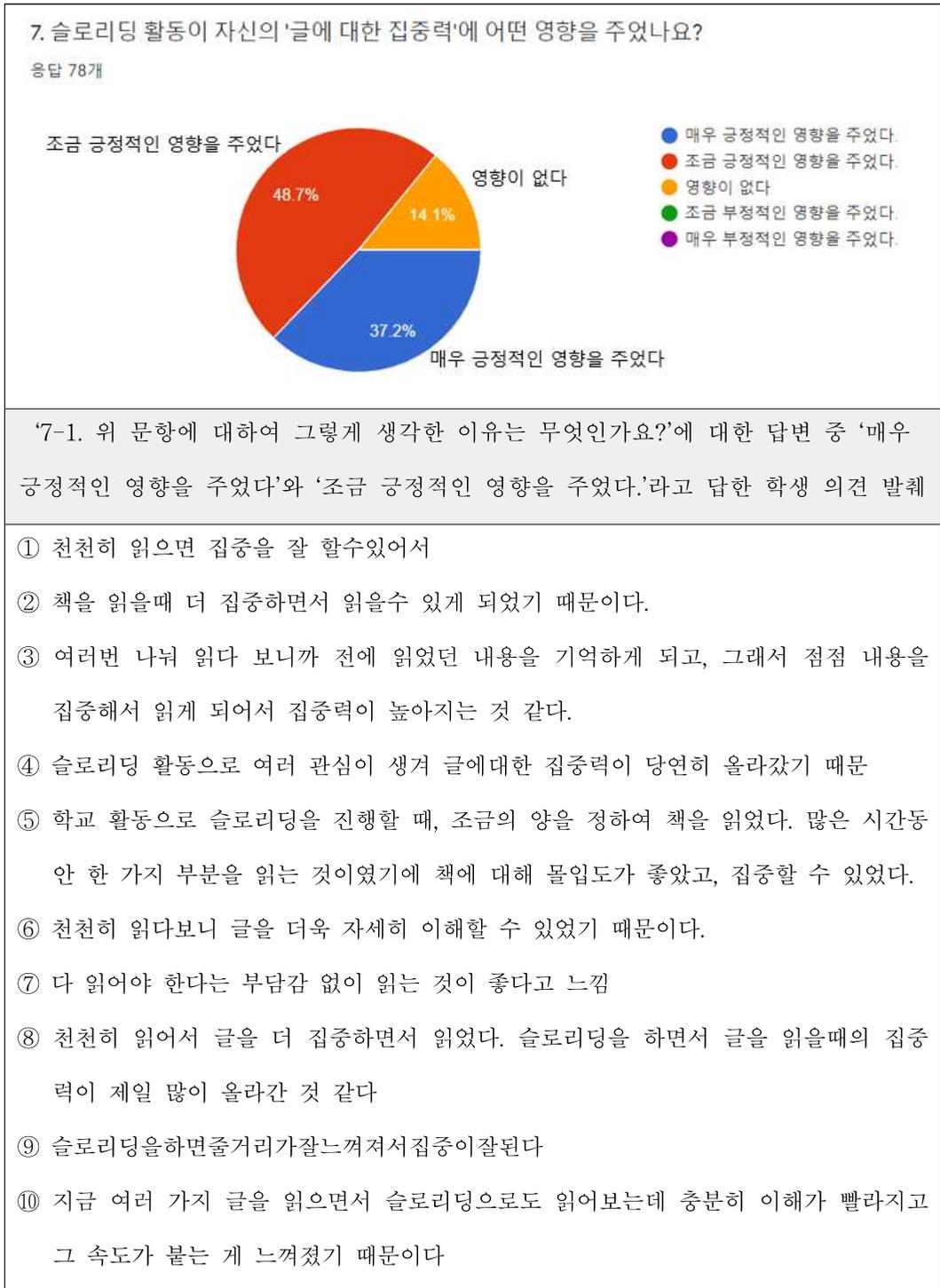
‘독서 몰입’이란 “특정한 문식 경험과 상황 하에 독자가 독서 행위에 인지적·정의적으로 몰입하는 상태, 또는 몰입 상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 ‘독서 활동에 개인의 모든 주의가 완전히 집중되면서 시간이 무의미해지고 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반하는 심리적 과정(이순영, 2015:62)”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독서 몰입은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독서 경험으로 이어지고 후행 독서에 대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슬로리딩을 통해 학습자들이 글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독서 몰입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독서 몰입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 결과



설문지를 구상할 때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이 몰입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집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는 이전 독서 선호도나 독서 효능감과 비교했을 때 사전, 사후 결과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쪽에 속하지만,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음’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33.3%(26명)에서 28.2%(22명)으로 약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대체로 집중해서 읽는다는 학생은 53.8%(42명)에서 56.4%(44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고, 집중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는 학생들 역시 12.8%(10명)에서 15.4%(12명)으로 2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설문 결과만으로는 슬로리딩과 독서 몰입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독서 몰입에 대한 추가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독서 몰입에 대한 추가 설문 결과



한번 읽을 때 끝까지 읽는다는 학생이 소폭이라고 할지라도 감소한 것과 달리 추가 설문에서는 학생들이 슬로리딩 활동이 자신의 글에 대한 집중력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을 더 많이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묻는 7-1 문항을 통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다. 7-1에 제시된 학생 답변들을 보면 답변 ③과 답변 ⑤처럼 글을 나눠서 읽는 것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즉, 학생들은 글을 나눠서 읽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집중력이 올라갔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읽으면 끝까지 읽는다.’라는 선택지가 있던 사전, 사후 설문에서는 학생들이 글을 나눠 읽으면 한번에 끝까지 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고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답변 ①, ②, ⑥, ⑦, ⑧, ⑨의 경우 지금까지 꾸준히 언급되었던 천천히 읽기와 그로 인한 내용 이해 증가, 읽기에 대한 부담 완화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아무래도 조금씩 읽어나가는 슬로리딩 활동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심리 상태가 글을 이해하고 글에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 ④의 경우에는 슬로리딩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이 확장되고 그것에 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몰입도 역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슬로리딩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들은 자칫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느껴질 수 있는 지루함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답변 ⑩은 자신이 설문지를 작성할 때 다른 글을 직접 슬로리딩으로 읽어본 다음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답변이었다. 특히 ‘충분히 이해가 빨라지고 그 속도가 붙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천천히 읽기로 시작된 독서 몰입이 글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고 그것이 글을 읽어나가는 속도도 붙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슬로리딩에서 강조하는 천천히 읽기가 단순히 천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확한 내용 이해나 속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첫 걸음을 땀 때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슬로리딩 독서법을 적용하여 독서 태도와 표현력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독서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논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는 사람들에게 정보 습득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던 독서가 최근 디지털 기기와 각종 영상 플랫폼의 발달로 점차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의 습득 외에 독서의 목적으로 언급되었던 즐거움 향유, 여가 시간 즐기기 등의 측면에서도 영상 매체가 사람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주면서 사람들이 독서를 멀리하는 현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독서 활동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독서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독서와 관련해서는 ‘책 읽는 교실’이나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독서가 지식과 정보 습득 외에도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독서는 점점 멀리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는 여전히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독서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특히 영상 매체와 비교하였을 때 독서가 지니는 특성 중 독서 교육에서 살릴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음들을 바탕으로 독서가 지니는 ‘머무름’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였다. 이때 ‘머무름’이란 사람들이 독서 활동을 할 때 그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활자 해독 과정을 멈추고 내용에 대해 곱씹어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살릴 수 있는 독서법으로는 ‘슬로리딩’ 독서법을 택하여 학생들과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슬로리딩 독서에서 강조하는 천천히 읽기가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충분히 머무르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특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와 사전, 사후, 추가 설문지를 통해 슬로리딩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독서 태도와 표현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슬로리딩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II장에서는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 배경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슬로리딩의 개념을 ‘한 편의 글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는 활동’으로 정의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이를 위한 원리 4가지를 설정하였는데 첫째,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 둘째, 도전적인 제재 글 선정. 셋째, 읽기와 쓰기 활동 중심. 넷째, 교사의 격려와 피드백이 그것이다. 또한 배움의 즐거움과 한 편의 글 읽기를 강조하는 슬로리딩의 특성은 양질의 독서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독서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으며, 다양한 활동 연계를 강조하는 슬로리딩의 특성은 쓰기 활동과 접목 시켰을 때 학생들의 표현력 신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변화는 설문지뿐 아니라 활동지에 작성한 글을 언어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분석함으로써 질적 변화와 양적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 III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수립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Y중학교 1학년 3개 반 학생 7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자유학년제가 실시되어 슬로리딩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중학교 1학년은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 기간은 사전 설문 조사를 2020년 5월에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의 변동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2020 9월부터 적용하여 2021년 2월까지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연구 절차는 크게 성취기준 분석, 제재 글 선정, 활동 내용 구상, 적용 및 수정, 분석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검사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온라인과 오

프라인 활동지, 설문지, 언어네트워크,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사문 두 편을 제재글로 선정하여 천천히 읽고 글에 머무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 1’과 읽기, 쓰기 활동을 확장하여 진행하는 ‘기사문 슬로리딩 프로그램 2’로 슬로리딩 수업을 설계하고 활동을 진행하였다.

IV장에서는 이러한 슬로리딩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현력 측면에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슬로리딩을 배운 후 사용한 단어, 글의 길이가 양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다. 글 내용 면에서도 학생들이 ‘나’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단어를 사용할 때 사회적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고 역지사지의 태도로 글을 쓰는 경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형식적인 글 구조 측면에서는 글 내용에 비해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맞춤법과 띄어쓰기 같은 언어 규범은 글을 한두 번 읽는 것만으로는 자연스럽게 신장되지 않고 의도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독서 태도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독서 요인에 여전히 부모님의 권유 등 외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월 평균 독서량도 다소 감소하였으나, 독서 선호도, 독서 동기, 독서 효능감, 독서 몰입 등 학생들이 생각하는 독서 태도의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슬로리딩 독서 수업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고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슬로리딩에서 강조하는 천천히 읽기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한 부담을 덜고 독서 자체를 좀 더 친근하게 여기는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며 글쓰기를 통한 표현 역량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고 독서의 가치, 배움에 대한 즐거움도 함께 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슬로리딩 독서 수업은 본 연구에서 문제로 인식하였던 사람들이 책을 점차 멀리하는 현상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천천히 읽으며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부여하고, 독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는 것이 긍정적인 독서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긍정적인 독서 경험의 누적은 미래의 애독자를 양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측면에서도 슬로리딩 독서 수업은 학습자의 독서 태도와 표현력에 대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슬로리딩 독서 수업은 개인과 사회의 측면에서 교육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학생들의 변화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독서 교육에서도 크게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나는 독서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독서 교육이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슬로리딩 독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재 글을 천천히 읽을 시간을 제공해주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던 것처럼 다른 독서 활동을 진행할 때도 학생들이 충분히 글에 머무르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긍정적인 독서 경험은 누적되었을 때 미래의 애독자를 양성하는 발판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독서를 자기 삶의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도 학생들에게 일회적인 독서 프로그램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독서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1. 원자료

EBS1. <다큐프라임-슬로리딩 생각을 키우는 힘>. 2014.10.06.-2014.10.08. 방영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2020.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76&pDataCD=0406000000&pType=04](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76&pDataCD=0406000000&pType=04))

### 2. 단행본

2018 책의 해 조직 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함께 읽는 2018 책의 해 독자 개발  
 연구 보고서;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 2018 책의 해 조직 위원회. 2018.  
 교육부. 『201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김민정. 『국어시간에 슬로리딩을 만나다』. 구름학교. 2020.  
 이순영 외. 『독서교육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5.  
 정영미. 『EBS 다큐 프라임 슬로리딩, 생각을 키우는 힘』. 경향미디어. 2015.  
 하시모토 다케시. 『슬로리딩』. 조선Books. 2012.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교학사 부설 국어교수학습연구소. 『독서  
 교육 사전』. 교학사. 2006.

### 3. 논문

강진숙. 「천천히, 깊게 읽는 3Go 슬로리딩 수업을 통해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국어 수업 만들기」. 『미래교육 전국대회』 12. 2017.  
 김동현. 「슬로리딩을 적용한 수업 사례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김명순. 「독서 작문 통합 지도의 전제와 기본 방향」. 『독서연구』 11. 2004.  
 김승환. 「讀書實態調査를 위한 質問紙 作成 研究」. 『圖書館學』 1. 1984.  
 노지영. 「슬로리딩(Slow reading) 방식을 활용한 영어동화 읽기 수업이 초등  
 학생의 영어 성취도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박경진 외.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야외지질학습 전후의 퇴적암에 대한  
 개념 구조 분석」. 『韓國地球科學會誌』 34. 2013.

- 반정이. 「‘천천히 깊게 읽기’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송지연. 「독서-작문 통합 교육을 위한 요약문 쓰기 수업 탐색」. 『독서연구』 36. 2015.
- 서영진. 「국어 교과 역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121. 2019.
- 이경화. 「기초 문식성 반영을 위한 국어교육과정 개발 방향」.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6. 2020.
- 이순영. 「독서 동기와 몰입 독서의 영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國語教育學研究』 16. 2006.
- 이재승.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의 방법과 유의점」. 『독서연구』 11. 2004.
- 이혜영. 「영어 동화책을 활용한 슬로리딩 활동이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전은혜.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대상 슬로리딩(Slow reading) 한국어 수업 방안」.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정덕호 외. 「개념 중심의 교과서 분석을 위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활용 사례 연구: 지구과학Ⅱ 교과서의 멘틀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 2018.
- 정동권. 「일식과 월식에 대한 교과서와 상위·하위집단 학생의 언어네트워크 비교」. 『현장과학교육』 15. 2021.
- 정혜승. 「읽기 태도의 개념과 성격」. 『독서연구』 16. 2006.
- 차혜경 외.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고령자 간 공유된 의미구조 분석」. 『사회복지정책』 41. 2014.
- 최숙기. 「중학생의 읽기 효능감 구성 요인 연구」. 『國語教育學研究』 25. 2009.
- 최숙기. 「중학생의 읽기 동기와 읽기 태도에 관한 상관성 연구」. 『독서연구』 23. 2010.
- 최혜민. 「슬로리딩을 통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ABSTRACT

### A Study on the Effect of Slow-Reading Class on Reading Attitude and Exp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Yang Ji Won

Advisor : Prof. Lee Jae ki, Ph.D.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s reading education by researching the effects of applying the Slow Reading Method to middle school students. Reading, which has been a major means of information acquisition for people, is becoming increasingly threatened by the recent development of digital devices and various video platforms that make it easier for people to access information through activities other than reading. In addition, the phenomenon of people staying away from reading is increasing as video media provides various contents to people in terms of enjoyment and leisure time mentioned for reading purposes as well as acqui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However, despite this decline in practical reading activities, people still regard reading as important. In addition, various reading programs such as "reading classroom" and "reading a book per semester" are being conducted on scene of a school. This is a clear indication that reading has a variety of educational values in addition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acquisition. People are increasingly neglecting reading for a variety of reasons, but they have not questioned the importance of read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what direction should reading education pursue? What characteristics of reading can be highlighted in reading education,

especially compared to video media?

Based on these questions, this study was to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Staying" of reading. The term "staying" means that when people are engaged in reading activities, they can stop reading the type and ponder the content just by thinking. Therefor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run a slow reading program using newspaper articles with students by selecting a slow reading method that can utilize this purpose properly. Also, I analyzed the work journals written by students and the pre-, post-, and additional questionnaires while running the program. Through this analysis, I will also examine the educational value of slow reading, especially by looking into the changes in students' reading attitude and expressiveness due to the slow reading program.

First, in chapter II, theoretical backgrounds which are the basis of this study were reviewed. As a result,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slow reading could be defined as "an activity that dwells on a writing one by one." Four principles have also been established for this. First, secure enough time to read slowly, second, select articles of challenging topics, third, focus on reading and writing activities, fourth, encouraging and feedback from teachers.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slow reading, which emphasizes the joy of learning in the course of activities and emphasizes reading a piece of writing, can lead to a positive reading attitude through a good quality reading experience.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slow reading, which emphasizes various activities together, are believed to be able to increase students' expressiveness when combined with writing activities. And the changes of students were made to examine the qualitative changes as well as quantitative changes by using questionnaires, activity sheets, and language network programs as analysis tools.

Specific research methods were established in the following Chapter III.

In this study, 78 first-year students of Y Middle School in Jeonju, Jeollabuk-do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e reason is that the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 are relatively easy to link various activities required for slow reading and they are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at they are beginning to decrease their interest in reading. A preliminary survey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in May 2020, but the specific program was applied from September 1, 2020 until February 2021. Meanwhile, the research process was largely carried out through the analysis of achievement criteria, selection of topics, planning, application and modification of activities, and analysis stages. In addition, online and offline activity papers, questionnaires,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programs were used as tools for examination analysis. In this study, two articles were selected as writing materials, and the class was designed with article slow reading program 1 where one can learn how to read slowly and stay in writing, and article slow reading program 2 which expands reading and writing activities.

In chapter IV, the results of the Slow reading program were analyzed and presented. In terms of reading attitude, the average reading volume of students decreased a little because the external motivation such as the recommendation of parents was still strong in the reading factor of students. However, in terms of reading attitude, such as reading preference, reading motivation, reading efficacy, and reading immersion, there were quite positive changes of students in general. In terms of expressiveness, the length of words and writings used after learning slow reading has increased, and in terms of content, students tend to use the word "I" to present subjective opinions, or to consider social meaning and context when using words and to write from others' perspectives.

This study found that slow reading class can help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 develop positive attitudes toward reading and develop their

expressive power through writing. In particular, students showed the ability to release the burden of reading, to think for themselves, and to learn the value of reading and the pleasure of learning through slow reading and various activities emphasized in slow reading. Therefore, slow reading classes have an educational meaning that by providing a positive reading experience to middle school students, readers can prevent them from staying away from books and develop their thinking and expressive skills in terms of individual students. And in order to further expand these changes, it is necessary to secure enough time for students to stay and think about the topics in reading education at scene of a school.

## 부록

### 1. 사전·사후 온라인 설문지 (12문항)

### 독서 사전 설문 조사(1학년 1반~3반)

안녕하세요. [redacted] 국어과 교사 양지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독서 능력 신장을 위해 1, 2학년의국어 시간 중 매주 1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여러분의 독서 인식 및 태  
 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앞으로 보다 나은 독서 수업 구상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  
 분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답변은 철저히게 비밀을 보장합니다. 각 문항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  
 은 뒤 자신의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필수항목

[공통 질문] 몇 학년 인가요? \*

1학년

2학년

[공통 질문] 몇 반 인가요? \*

1반

2반

3반

4반

5반

[공통 질문] 몇 번 인가요? \*

내 답변

[공통 질문]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

내 답변

다음

1번 ~ 6번 문항

1. 한 달에 보통 책을 몇 권 정도 읽나요? \*

- 0~1권
- 1~3권
- 3~5권
- 5~10권
- 10권 이상

2. 주로 어떤 이유로 책을 읽는 편인가요? \*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골라주세요. '기타'를 선택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세요.

- 책 읽기를 좋아해서
- 친구들이 같이 읽자고 해서
- 부모님께서 읽으라고 하셔서
- 학교 숙제 때문에
- 학원 숙제 때문에
- 기타: \_\_\_\_\_

3. 자신은 평소 독서 활동을 얼마나 좋아하나요? \*

- 매우 좋아함
- 좋아함
- 보통
- 싫어함
- 매우 싫어함

4. 성공적인 독서 수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기타를 선택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세요.

- 책을 끝까지 읽는 것
-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 책도 끝까지 읽으면서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
- 기타: \_\_\_\_\_

5. 평소에 자신은 성공적인 독서를 얼마나 잘 수행한다고 생각하나요? \*

- 매우 잘 수행한다고 생각함
- 조금 잘 수행한다고 생각함
- 보통 정도로 수행한다고 생각함
- 조금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 매우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6. 자신은 독서를 할 때 얼마나 집중해서 읽는 편인가요? \*

-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음
- 대체로 집중해서 읽음
- 집중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됨
- 항상 집중이 안 됨

7. 자신은 스스로 평소에 독서를 꾸준히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나요? \*

- 매우 많이 노력함
- 조금 노력함
- 보통
- 조금 노력하지 않음
- 매우 노력하지 않음

8. 독서를 통해 자신이 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기타를 선택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세요.

- 어휘력 향상
-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
- 읽기 능력 신장
- 성적 향상
- 배경지식 습득
- 독서 자체의 즐거움
- 기타: \_\_\_\_\_

9. 자신이 생각하는 '읽기 능력'이란 무엇인가요? \*

\*기타를 선택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세요.

- 풍부한 어휘력
- 글에 대한 집중력
- 글 내용 이해력
- 속독 (글을 빠르게 읽는 것)
- 다독 (글을 많이 읽는 것)
- 기타: \_\_\_\_\_

10.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읽기 방법은 무엇일까요? \*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골라주세요.

- 속독 (빨리 읽기)
- 다독 (많이 읽기)
- 복독 (한 권을 여러 번 읽기)
- 정독 (꼼꼼히 읽기)
- 윤독 (같은 책을 여러 명이 같이 읽기)
- 완독 (천천히 읽기)

11.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주변 사람(친구, 형제자매, 부모 등)에게 이야기하며 공유하는 편인가요? \*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임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12.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은 주로 언제 공유하는 편인가요? \*

- 책을 읽은 직후
- 평소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 수업 시간에 과제를 수행하며 관련 내용이 나올 때
- 기타: \_\_\_\_\_

13. 아래 설명 내용을 읽고 선택지를 클릭하여 '제출'해주세요. \*

본문 제출이 완료되면 일 년 동안 자신의 활동 내용을 수업 개선 및 연구를 위한 자료로 참고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출해주신 내용은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뒤로

제출

## 2. 추가 설문지 1 (11문항)

### 슬로리딩 추가 설문지 1

안녕하세요 [ ] 국어과 교사 양지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독서 능력 신장을 위해 1, 2학년의 국어 시간 중 매주 1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진행한 슬로리딩 독서 활동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알아보고 더 나은 수업을 구상하는 데 참고하고자 추가설문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국어/독서 시간에 진행한 슬로리딩 활동을 떠올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

\* 필수항목

몇 반인가요? \*

- 1반  
 2반  
 3반

몇 번 인가요? (숫자만 기입 바랍니다.)

내 답변

이름은 무엇인가요?

내 답변

1. 슬로리딩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의 독서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글'은 어떤 무엇인가요? \*

- 글 난이도  
 다양한 어휘  
 구체적인 예시  
 글의 구조나 반전  
 다양한 보조 자료  
 기사문이라는 글 유형  
 글의 내용이나 주제  
 글과 자신의 관련성

2. 슬러리딩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의 독서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내적 요인'은 무엇인가요? \*

- 글을 읽는 목적
- 독서에 대한 가치 인식
- 독자로서 지니는 주체성
- 슬러리딩 활동에 대한 집중력
- 슬러리딩 활동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
- 슬러리딩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3. 슬러리딩 활동을 진행하며 자신의 독서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교실 환경 요인'은 무엇인가요? \*

- 교사의 전문성
- 교사의 피드백과 격려
-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뢰
- 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
- 교사가 강조하는 슬러리딩의 가치
- 적절히 도전적인 과제
- 의미 있고 흥미로운 과제
- 활동을 수행할 때 자신이 지니는 자율성
- 자신과 친구들이 수행한 활동 내용 공유

4. 슬러리딩 활동이 자신의 '독서 동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영향이 없다.
-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4-1. 위 문항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 답변

---

5. 슬로리딩 활동이 자신의 '독서 선호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영향이 없다
-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5-1. 위 문항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 답변

6. 슬로리딩 활동이 자신의 '독서 효능감 (독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영향이 없다
-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6-1. 위 문항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 답변

7. 슬로리딩 활동이 자신의 '글에 대한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영향이 없다
-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7-1. 위 문항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 답변

8. 슬로리딩에서 진행한 생각 공유하기 활동(언어 감수성 글쓰기, 패들렛을 활용한 토의하기 등)이 자신의 독서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영향이 없다
-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8-1. 위 문항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 답변 \_\_\_\_\_

9. 슬로리딩 활동이 스스로 글을 찾아 읽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영향이 없다
-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9-1. 위 문항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 답변 \_\_\_\_\_

10. 슬로리딩 활동이 꾸준하게 글을 읽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영향이 없다
-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0-1. 위 문항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 답변 \_\_\_\_\_

11. 슬러리딩 활동에서 배운 글을 천천히 읽는 방법(단어 찾아 읽기, 밑줄 그으며 읽기, 자로 찾으며 읽기 등)이 자신이 스스로 독서 활동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절하고 있다는 믿음을 기르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영향이 없다
-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1-1. 위 문항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 답변

---

설문 제출이 완료되면 일 년 동안 자신이 활동한 내용을 수업 개선 및 연구를 위한 자료로 참고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출해주신 내용은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동의합니다.

뒤로

제출